

---

2016  
ANNUAL REPORT

---

#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차보고서





# Small & medium Business Corporation

## CONTENTS

### Intro

---

- 4 발간사
- 6 연혁
- 8 중진공 비전 · 전략체계
- 9 중진공 주요 사업
- 10 경제동향과 중소기업동향
- 12 2016 HIGHLIGHT

### 1 2016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

---

- 18 2016년 사업추진 방향 및 실적
- 20 기업진단
- 22 정책자금 융자
- 42 마케팅 · 글로벌화
- 64 인력양성
- 76 기술 · 컨설팅

### 2 고객만족도 제고 및 경영효율성 강화

---

- 88 현장 중심의 고객서비스 향상
- 91 조직 경영효율성 강화

### 3 2017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추진 방향

---

### 4 부록

---

- 108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출자회사 현황
- 111 2016년 발간간행물
- 111 2016년 주요 행사
- 112 조직도
- 113 운영위원 및 임원

발간사  
Message

중소기업을 미생에서 완생으로!

협업과 패키지 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2016년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지진, 태풍 등 대내외 악재로 인한 내수 및 해외수요 부진으로 중소기업에게는 참으로 혹독한 시기였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지원예산 확보, 피해기업 대상 신청요건 완화 등 특례 지원, 앰블런스맨 운영 등을 통한 피해기업 신속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전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정책자금 사전상담 예약제 도입으로 고객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여 기업의 불편을 완화하였고, 창업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 시행하여 고객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 제도로 개선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글로벌화 노력과 창업활성화 추진 정책들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온라인수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수출유망 중소기업(제품)의 국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여 특허 출원하였고, 청년창업사관학교 기술창업자 선발 비중 확대와 역량 맞춤 교육 및 특화 코칭으로 사업화성공률을 제고하였습니다.

인력양성부분에서는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과 연계하여 스마트공장 핵심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수출아카데미」를 운영하여 1,902명의 수출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를 연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여 청년층의 취업부터 장기재직까지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중진공은 사업·기관 간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수출 증대와 고용 창출 등 체감할 수 있는 지원성과를 내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수출성과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자금 용자 예산을 확대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성장동력 분야 집중 육성 및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수출도약을 위한 유망내수기업을 집중 발굴하여 해외진출 및 수출성과 창출을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성과 창출형 기업을 양성하고 현장 적용도가 높은 Learning factory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인력양성 지원부터 내일채움공제를 통한 핵심인력 장기재직유도까지 중소기업 인력양성 플랫폼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업종·사업·기관 간 협업과 연계 지원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수출 증대와 일자리 확대, 성공 창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중진공 임직원은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BEST PARTNER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중진공의 행보에 중소기업 대표 및 관계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2017년 5월 이사장

임채운

# 연혁 HISTORY

## 1970~90

**1979. 1.**

### 중소기업진흥공단 설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및 기금 설치('78.12)

**1982. 10.**

### 중소기업연수원(안산) 개원

지역연수원 개원 : 호남(2001.9),  
대구·경북(2003.11), 부산·경남(2004.10)

**1985. 2.**

### 국내 지역본·지부 설치

16개 지역본부, 15개 지부('13.2 현재)

**1989. 9.**

###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 수행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에  
관한 특별법

## 1990~

**1993. 7.**

###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한 구조개선사업 실시

**1998. 7.**

### IMF 경제위기상황에 따른 직접대출 전면실시

**1998. 9.**

### 중소기업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수출 BI 설치

주요 11개국 17개  
수출인큐베이터 설치·운영



## 2000~

2002. 3.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산업기반기금 통합

기금명칭 :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2006. 9.

무역조정·사업전환지원센터 개소('07.4)

2008. 6.

정책자금 융자 및  
해외마케팅지원창구 단일화

산업기반기금 및 국내수출지원업무 인수,  
4개 해외사무소 폐쇄

2009. 1.

기금명칭 변경

기금명칭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약칭 : 중진기금)」

2009. 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지정

## 2010~

2011. 3.

청년창업사관학교 개교

2012. 1.

청년창업센터 개소

18개 지역본부에 운영(2014.12 현재)

2012. 12.

“금융형 준정부기관” 지정

2013. 12.

“해외유통망진출지원센터” 설치

미국 뉴저지 1개소

2014. 7.

본사 지방이전 완료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2014. 8.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기금 설치(2014.1)

2014. 10.

글로벌리더십 연수원 개원

2014. 11.

카자흐스탄 글로벌 BI 개소

2015. 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력양성,  
컨설팅 사업 인수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기재부 공운위 의결(2014.12.23)

2016. 12.

기업인력애로센터 신설



# 중진공 비전·전략체계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주역으로 육성

Mission

성장단계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의 Best Partner**  
(중소기업의 꿈을 성공의 꽃으로)

Vision

경영목표

- 미래 성장유망기업 6,000개 사 육성
- 일자리 60만 개 창출
- 수출 310억 불 달성
- 고객만족도 S 등급

전략목표

01 주력사업 성과창출	02 신성장 사업모델 개발운영	03 대고객 서비스 개선	04 기관혁신 선도
--------------------	---------------------------	---------------------	------------------

전략과제

01 성장단계별 정책 자금 운영 차별화	04 융합연계형 신사업 개발운영	07 고객중심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10 성과중심 조직 인사운영
02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	05 기관 간 협업사업 개발운영	08 고객관리시스템 고도화	11 윤리경영 정착
03 청년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양성	06 4차 산업혁명 선도	09 정책고객 서비스 강화	12 기금건전성 관리 강화



## 중진공 주요 사업

중소기업의 **꿈**을 성공의 **꽃**으로



## 경제동향과 중소기업동향

### 경제동향

2016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2.7% 성장하였다. 지출항목별로는 건설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정부 및 민간의 소비 증가율이 높아졌으나 설비투자는 감소로 전환하였다. 경제활동별로는 건설업의 증가세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제조업의 증가율이 높아졌으나 서비스업의 성장세는 둔화되었다.

실질 국민총소득 성장률(4.0%)은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큰 폭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실질무역손익이 이익으로 전환하는 등으로 실질 국내총생산(4.2%)을 크게 상회하였다.

수출(5,320억 달러)은 대부분의 업종 및 지역 전반에서 부진하였고, 수입(4,398.5억 달러)의 경우 자본재 및 소비재는 소폭 증가세를 보였으나 원자재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년대비 두 자리 수 감소하였다.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증가세가 지속되어 전체 취업자는 전년대비 33만 7천 명 증가하였다. 하지만 실업률은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4만 명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0.1%p 상승한 3.6%를 기록하였다.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48.5%로 전년대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단순노무 종사자의 증가율(3.9%)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전년대비 하락하였고, 40대는 동일하였으나, 그 외의 연령계층에서는 경제활동 참가가 확대되었다.

생산자 물가는 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25년 만에 사상최대로 하락했다. 생산자 물가는 통상 소비자물가에 선행하는 경향이 있어 당분간 저물가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 국내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경제활동별 성장률(실질) (%)					
국내총생산(GDP)	2.3	2.9	3.3	2.6	2.7
국민총소득(GNI)	2.7	3.7	3.4	6.5	4.0
수출동향 (억달러, %)					
수출(FOB)	5,478.7	5,596.3	5,726.6	5,267.6	4,954.2
(증감률)	(Δ1.3)	(2.1)	(2.3)	(Δ8.0)	(Δ5.9)
수입(CIF)	5,195.8	5,155.8	5,255.1	4,365.0	4,061.9
(증감률)	(Δ0.9)	(Δ0.8)	(1.9)	(Δ16.9)	(Δ6.9)
무역수지	282.9	440.5	471.5	902.6	892.3
고용동향 (천명, %)					
경제활동인구	25,501	25,873	26,536	26,913	27,430
취업자	24,681	25,066	25,599	25,936	26,476
고용률	59.4	59.5	60.2	60.3	60.8
실업자	820	807	937	976	954
(실업률)	(3.2)	(3.1)	(3.5)	(3.6)	(3.5)
물가동향 (2010=100, %)					
소비자물가지수	96.8	98.0	99.3	100.0	101.0
(전년대비)	(2.3)	(1.2)	(1.3)	(0.7)	(1.0)
생산자물가지수	107.5	105.7	105.2	101.0	99.1
(전년대비)	(0.7)	(Δ1.8)	(Δ0.5)	(Δ4.2)	(Δ1.9)

\* 참고자료: 기획재정부(2016년 경제전망), 한국은행(경제활동별 성장률, 물가동향), 무역협회(수출동향), 통계청(고용동향)

## 중소기업동향

2016년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예산조기 집행 등으로 경기가 상승세였으나 하반기 국내 정국 혼란,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상승세가 감소하였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내수·수출 부진으로 생산이 줄어 전년대비 1.9%p 감소하였으나,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년대비 2.1%p 증가하였다.

연간 신설법인 수는 정보화거래 확대와 한류상승세 등의 영향 및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확대에 따른 30세 미만 창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0년 이후 역대 최고치인 96,155개를 기록했다. 또한 부도업체수도 전년 대비 22.9% 감소한 555개로 2009년 이후 이어진 감소세를 계속 이어나갔으며, 어음부도율도 0.01%로 전년수준을 유지하였다.

정부의 중소기업 중점 육성시책 등에 힘입어 2016년도 말 기준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전년 동기대비 2.5% 증가한 591조원을 기록했다. 또한 중소기업 자금 금리 인하로 인해 중소기업 대출금리도 3.69%로 전년 대비 0.2%p 하락하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그리고, 중소기업 연체율의 경우에는 연말을 앞두고 상각 등 연체채권 정리규모의 증가로 연체채권 잔액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대비 0.1%p 하락하였고 2011년 이후 개선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 중소기업 관련 주요지표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제조업 생산동향 (2010=100 기준)						
제조업 생산지수	107.5	108.2	108.5	108.2	109.3	
중소제조업 생산지수	104.7	106.3	106.4	105.1	106.1	
산업활동 동향						
제조업 평균가동률(%)	78.5	76.5	76.1	74.5	72.6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71.1	71.8	71.5	71.8	73.9	
제조업 가동률지수 (2010=100 기준)	97.5	95.1	94.3	92.1	90.4	
창업 및 부도동향						
신설법인 수(A) (개)	74,162	75,578	84,697	93,765	96,155	
부도법인 수(B) (개)	890	705	614	517	433	
신설/부도배율(A/B) (%)	83.3	107.2	137.9	181.4	222.1	
부도업체 수 (개)	1,228	1,001	841	720	555	
어음부도율 (전자결제조정후,%)	0.02	0.02	0.02	0.01	0.01	
금융동향						
대출잔액	중소기업	446.8	489.0	522.4	576.6	590.9
(원화대출, 연말, 조원)	대기업	142.2	166.1	183.5	179.3	182.2
대출금리(신규액기준)	중소기업	5.66	4.92	4.60	3.87	3.69
(연 %)	대기업	5.18	4.46	4.10	3.40	3.14
대출연체율	중소기업	1.02	0.88	0.84	0.73	0.63
(12월말기준, %)	대기업	0.83	0.81	0.57	0.92	0.77

\* 자료: 통계청(생산동향, 설비투자 실시업체비율, 산업활동동향), 한국은행(창업 및 부도동향), 금융감독원(금융동향)

# 2016 HIGHLIGHT 1

1

## 중진공-KOTRA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6년 1월 26일(화)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진공과 KOTRA는 글로벌 바이어 수출상담회 공동개최, 글로벌 역량진단을 통한 수출기업화 지원, 수출유망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에 협업하기로 했다. 특히 두 기관은 중진공의 해외전시관 매장(K-HIT PLAZA)과 KOTRA의 기업간거래(B2B) 물류사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유통망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

## 청년창업사관학교 제5기 졸업식 개최



2016년 2월 24일(수)

경기도 안산 청년창업 사관학교에서 제5기 졸업식이 개최되었다. 이번 제 5기 졸업식을 통해 총 252명의 청년 CEO가 배출되었다. 이번 졸업식에는 임채운 이사장을 비롯하여 벤처창업 관련 유관기관장, 졸업기업 가족 등 내빈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최이현 (주)모어댄 대표와 김화중 (주) 예시시스템 대표는 각각 중기청장 표창과 중진공 이사장상을 수상하였다. 최 대표는 폐차된 자동차의 가죽시트를 재가공하여 명품 가방 및 액세서리 등으로 재탄생시킨 공로를, 김 대표는 세라믹 소재를 활용한 3D프린터를 제품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현재까지 총 1,215명의 청년CEO를 배출하였으며 3,800여억 원의 매출액, 1,700여 건의 지적재산권 등록, 5,000여 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거두었다.

3

## 제11회 동아시아 중소기업 라운드테이블 참석



2016년 3월 10일(목)~11일(금)

임채운 이사장은 일본 오타루에서 개최된 제11회 동아시아라운드테이블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라운드테이블 주제는 'FTA(자유무역 협정) · EPA(경제연계협정)와 관련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방안 모색이었다. 임채운 이사장은 첫 강연자로 나서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중진공 지원사업 및 성공사례 등을 소개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시 기관 간 상호 정보교류, FTA원산지 증명관련 기관 간 협조를 강조하였다. 동아시아 중소기업 라운드 테이블은 한국을 비롯한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5개국의 중소기업 정책수립 및 집행 기관장 간의 연례회의이다.

4

반부패·청렴  
윤리경영 실천 서약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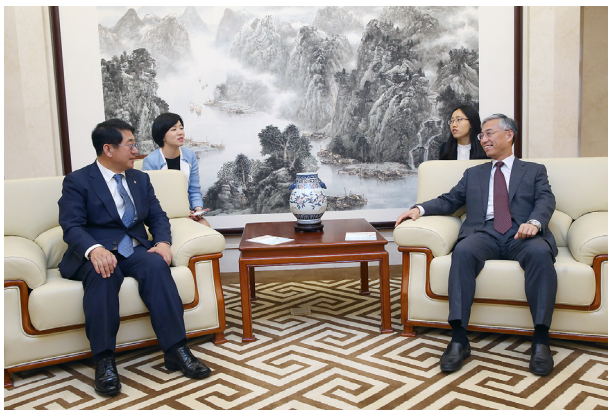


2016년 5월 16일(월)

중진공 진주 본사에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청렴실천 서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서약식에는 임채운 이사장과 ㈜메타바이오메드 오석송 대표를 비롯한 비상임이사들도 참가하였다. 반부패·청렴 윤리경영 실천 서약식은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 의지를 대내외로 천명하기 위해 2015년부터 중진공 전 임직원이 서약식에 참가하고 있다. 서약의 주요내용은 공정한 업무처리, 청탁·알선 근절, 부당한 금품 및 편의 서비스 수수 금지, 부패행위예방 등이다.

5

임채운 이사장,  
주한 중국대사 간담회



2016년 6월 3일(금)

임채운 이사장은 주한 중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추귀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비롯한 주한 정무참사, 주한 중국기업대표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한·중 FTA 타결을 계기로 향후 FTA 활용방안에 대한 양측 유관기관 및 중소기업 대표자들의 의견교환 및 상호교류를 위해 개최되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는 국내 우수 중소기업 CEO 20여 명이 함께 참석하여 양국 간 기업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제61차 ICSB 월드 컨퍼런스  
참가



2016년 6월 15일(수)

미국 뉴욕대학교 Catholic Center에서 개최된 제61차 ICSB 월드 컨퍼런스 Korea Session에 참석하여 ‘중진공의 미래지향적 사업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날 임채운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투·융자 복합금융 성공 사례 등 중진공 주요 지원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제2의 경제도약의 필요성과 방법을 제시하며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 해외판로개척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1995년 설립된 ICSB는 80개국의 교수, 연구원, 기업인, 정부관료 등으로 구성된 2,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중소기업 관련단체다.

## 2016 HIGHLIGHT 2

6

### 2016 글로벌 청년창업기업 선정식 개최



2016년 7월 1일(금)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글로벌 청년창업기업’ 선정식을 개최했다. 청년창업기업 글로벌 진출지원사업은 중진공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기업에 연계컨설팅을 통해 청년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18개 중진공 청년창업센터의 추천 및 수출전문가 평가를 거쳐 총 100개의 기업이 선정되었다. 중진공은 선정기업에 대해서 향후 영문상품페이지 제작, 진성 바이어 발굴, 온라인 쇼핑물 판매대행 연계 등의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7

### 중진공, 사상 최저금리로 외화채권 5억 달러 발행



2016년 8월 23일(화)

중진공 자금관리실은 달러화 표시 외화채권(글로벌본드)을 국내 기업사상 최저금리로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행규모는 5억 달러이며, 유럽 및 아시아계 기관의 예상매수 주문 규모는 33억 달러였다. 이번에 발행된 채권의 금리는 10년 만기 기준 2.236%로 종전 최저 금리였던 한국가스공사의 2.325%보다 0.09% 포인트 낮다. 중진공은 향후에도 높은 기관신용등급에 힘입어 중진체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8

### 대통령 러시아 경제사절단 동행 및 업무협약 체결



2016년 9월 2일(금)

임채운 이사장은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 사할린 주정부와 양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진공이 대통령 러시아 경제사절단에 동행하여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추진되었다. 또한 러시아 중소기업은행을 자회사로 운영 중인 러시아 중소기업공사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국 간의 협약을 통해 향후 중소기업 합작투자, 양 기관 직원 파견 및 교류세미나, 양국 기업 간 파트너 매칭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9

### 중진공 사업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CEO클럽 워크숍



2016년 10월 13일(목)

임채운 이사장은 목동 대회의실에서 중진공 사업활성화를 위한 기업인·임직원 워크숍에 참가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글로벌CEO 클럽과 퓨처스클럽 소속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날 글로벌 CEO클럽 소속 기업인 8명 및 퓨처스클럽 소속 기업인 3명 등 총 11 명이 참석하여 중소기업 기술 보안 사업 추진, 맞춤형 홈페이지 제작 지원, 수출전문가 컨설팅 지원 요청 등 CEO클럽 및 퓨처스클럽 발전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중진공 측에 전달했다.

10

### 스마트공장 인재양성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6년 11월 3일(목)

안산중소기업연수원에서 (재)민관합동스마트공장 추진단 및 한국생산성본부와 스마트공장 전문 인력양성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제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스마트공장 산업경쟁력을 키우고,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역량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인력양성 교육과정 구축 협력,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재양성,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및 데모공장 인프라 활용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기로 했다.

### 중진공, 정부3.0 및 정상화과제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6년 11월 3일(목)

경주에서 개최된 2016년도 정부3.0 및 정상화과제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정책자금 사전상담예약제' 도입을 통한 고객 편의 증대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본 제도는 지역본(지)부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사전 자가진단 실시를 통해 대기시간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자금 온라인신청 시스템을 개선한 것이다. 현재 월평균 2천여 개의 중소기업 고객이 사용하고 있으며, 만족도는 93%에 이른다. 중진공은 앞으로도 수요자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부3.0의 취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 1

2016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

---





18	2016년 사업추진 방향 및 실적
20	기업진단
22	정책자금 융자
42	마케팅·글로벌화
64	인력양성
76	기술·컨설팅

# 2016년 사업추진 방향 및 실적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자생력 강화와 글로벌화를 주요 중점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규제 개선과 정책지원을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지원을 확대하였다. 특히,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적극 대응하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중진공이 2016년도에 추진한 중소기업 지원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진공 사업 추진 기반인 기업진단을 통해 정책자금 용자 신청업체에 대해 총 13,526억 원의 정책자금 용자를 지원하였고, 지원 후에는 사후관리 진단을 실시하여 정책자금 용자의 효과성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정책자금 용자뿐만 아니라 진단을 통해 파악된 기업의 문제점 및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R&D, 보증 등의 유관기관 사업 정보제공 및 기술 지원, 마케팅, 연수 등의 중진공 사업을 연계하여 진단기업에 대해 총 5,793건의 정책지원 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였다.

정책자금 용자사업은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와 창업 활성화, 자금조달 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6년 총 21,224개 기업에 45,100억 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창업·일자리 분야 및 전략산업을 중점 지원하고 성과 창출을 위한 연계 지원 강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목적성을 제고하였으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지진, 태풍 등 대내외 악재로 인한 피해 기업 지원에 신속히 대응하였다.

2016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진출 기업 전용자금', 고용 창출 및 인재 육성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재 육성형 기업 전용자금', 한·중 FTA 취약업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 전용자금'을 신설하였다.

또한,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 및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2015년 2.7% → 2016년 2.5%)하고 대출기간을 확대(5년 → 6년)하였으며, 데스밸리 영역의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상환기간 연장제도를 신설하였다. 또한 수출금융 한도확대 및 지원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수출 기업 성장을 촉진하였고, 수출 성과 창출기업, 시설자금 대출기업 등에 대한 금리 우대제도를 도입하였다.

마케팅·글로벌화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지역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사업을 수행하였고, 총 1,891개 업체가 참여하여 1,100백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온라인으로는 Gobizkorea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2016년까지 중소기업 46,415개사의 189,647개의 상품정보를 DB로 구축하였다. 또한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HIT500 제품 330개를 발굴하고, 국내 정책매장(행복한백화점 등 15개)과 온라인 오픈마켓(G마켓, 11번가 등) 내 HIT500 제품 특별 판매기획관 운영 등을 통해 연간 4,993백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그리고 해외 대형유통망에 B2C

(소비재) 위주의 중소기업 제품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유통망 진출 지원 사업은 소비자 직접판매 및 연계판매 91억 원, 프로모션 100억 원 등 2016년 한해 191억 원의 수출실적을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지원 기관과 MOU 체결(9개국 11개 기관), 산업협력관 교환(17개국 25명), 해외시장 진출 환경 세미나(10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6년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입주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우수상품 특별판매전을 총 19회 실시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유통센터 및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인력양성사업**은 인력 유입부터 장기재직에 이르는 인력양성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26,136명의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추진하였고, 중소기업 특성화고 등의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총 21,785명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5개 연수원을 통해 2016년 48,282명, 누적인원 138만 명의 연수인원을 달성하였으며, 스마트공장 핵심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해 2014년부터 신규로 추진한 내일채움공제사업은 2016년(누적 기준) 19,205명이 가입하여 누적가입목표 18,500명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를 연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여 청년층의 취업부터 장기재직까지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영·기술 전반의 문제해결 방안 제시로 기업 경쟁력 강화, 컨설팅 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6년에는 기술·경영, 특화형, 원스톱 창업지원 분야에서 995개 기업을 대상으로 115억 원, 4개 컨설팅 대학원에 16.75억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R&D 성공과제 사업화 지원사업은 R&D 성공기술 및 특허기술 중 사업화 추진이 안 된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한 사업화 기획, 제품화 지원으로 48개사를 지원하였으며, 1,322백만 원의 신규매출을 창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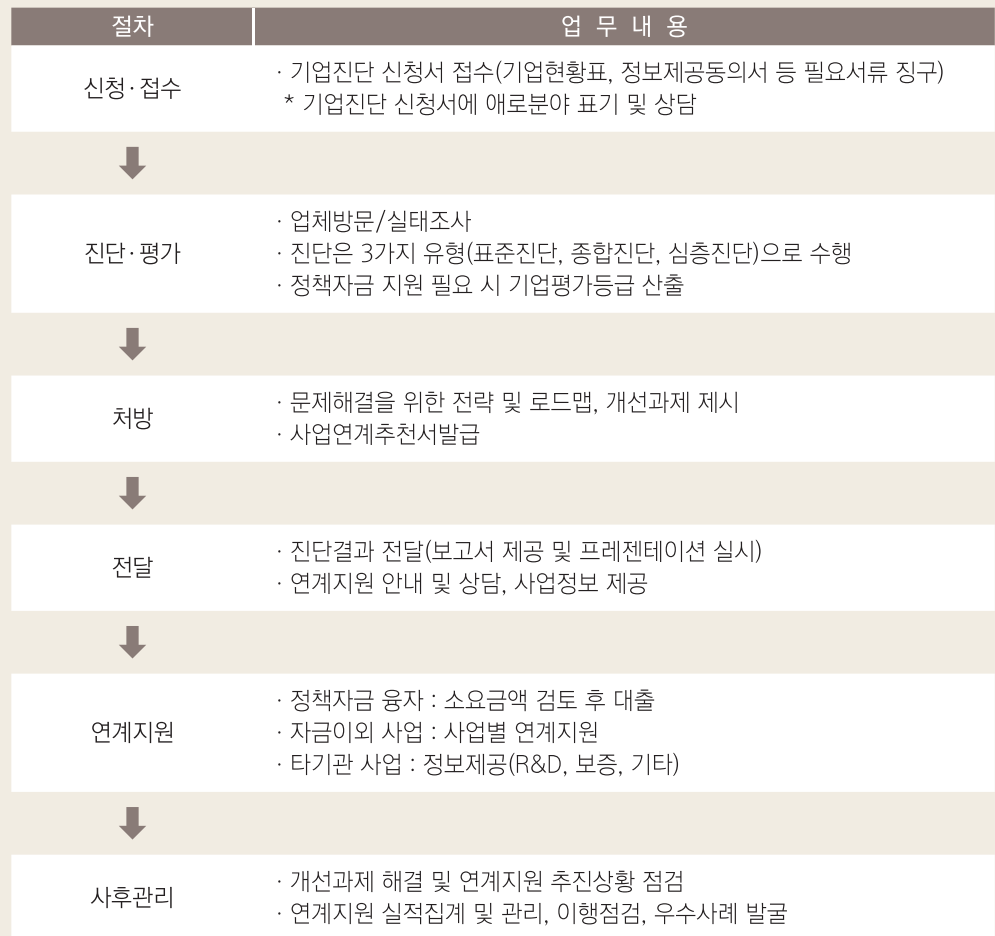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2016년도에도 중진공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종합지원 기관으로서 국가 경제의 중심축인 중소기업이 내·외부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성장·발전해갈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 판로·수출지원, 인력양성 지원, 기술 지원 등 각종 시책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 기업진단

## 사업개요

기업진단은 기술·경영 전문가가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 로드맵 제시 및 정책 자금, 마케팅, 인력 등 정책사업을 맞춤형으로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며, 정책자금 용자 신청업체에 대한 사전진단 및 용자 후의 사후진단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업부실의 발생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기금의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 기업진단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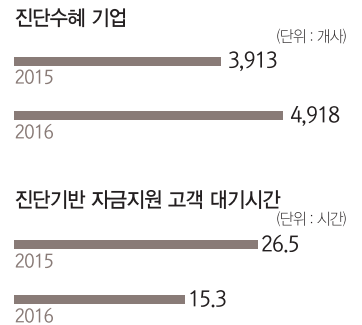
2006년부터 운영 중인 기업진단시스템은 중소기업의 기술/산업분석, 핵심역량분석, 경영성과분석, 전략 및 로드맵 등 8개의 필수모듈과 투자타당성 분석, 설비투자회수기간 검토, 조직문화 진단 등 26개의 옵션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단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에 최적화된 모듈을 선정·활용하여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에는 기존 단일진단 체계에서 고객 상황에 따른 3가지 진단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한 결과 진단 수혜기업이 대폭 확대되었고 고객대기시간도 축소되었다.

##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 고객 상황에 따른 진단유형 세분화

구분	고객상황	진단내용
표준진단	신속한 자금지원 필요 고객	기업평가항목과 연계하여 저평가 항목에 대해 표준솔루션 제공
종합진단	일반자금 및 사후관리 고객	기업 분석을 통해 문제점 제시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사업 연계
심층진단	고성장 및 고액 대출 고객	종합진단에 추가로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한 단기 문제해결 지원



정책자금 용자 신청업체에 대해 기업진단을 실시하여 총 13,526억 원의 정책자금 용자를 지원하였고, 정책자금 용자 후 사후관리 진단을 통해 정책자금 용자의 효과성 제고는 물론 기금의 부실률 저감을 위해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진단을 통해 파악된 기업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진단기업에게 기술지원, 마케팅, 연수 등의 정책사업을 추천하여 5,793건의 정책사업을 연계지원하였다.

진단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표준솔루션 및 생산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현장분석 기법 10-Tool 모듈을 신규로 개발하였다. 또한 진단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내부적으로 진단 자격증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5년 56명, 2016년 63명의 기업진단사를 양성하였다.

기업진단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 분석 결과 타사업 대비 높은 고객만족도를 실현하였다.

중진공은 경제적 환경 변화와 기업 내·외부적 변화에 맞춘 기업진단사업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전문 연구기관에 사업성과 분석을 의뢰하고 있다. 기업진단의 성과와 만족도는 기업진단 내용의 충실도가 좌우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진단기반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진단 시스템 고도화 및 진단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며 이러한 토대 위에서 중소기업의 애로해결 및 자생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10-Tool 모듈**  
라인밸런싱(LOB), 수주패턴(PQ), 수율, 납기준수율, 리드타임, 가동률, 준비교체, 공정능력, 게이지신뢰도, 5S수준평가

**매출증가율('15년)** (한국은행 중소기업조업 평균)



**기업진단 고객만족도 결과** (출처: 중소기업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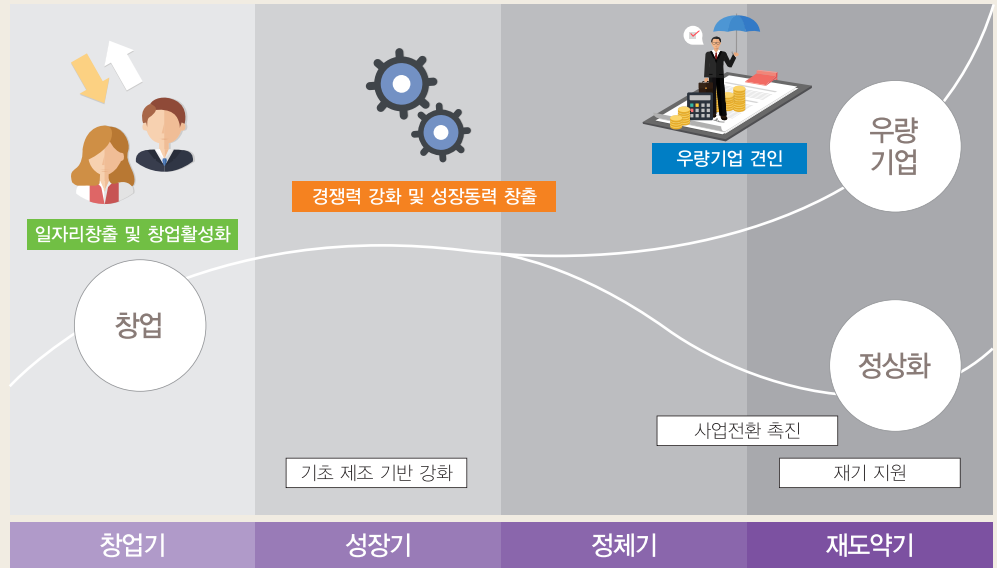


# 정책자금 융자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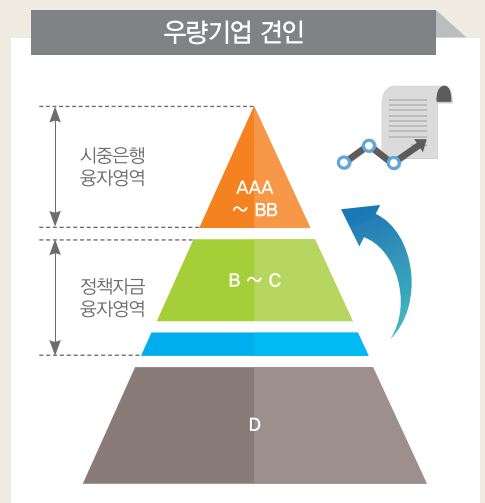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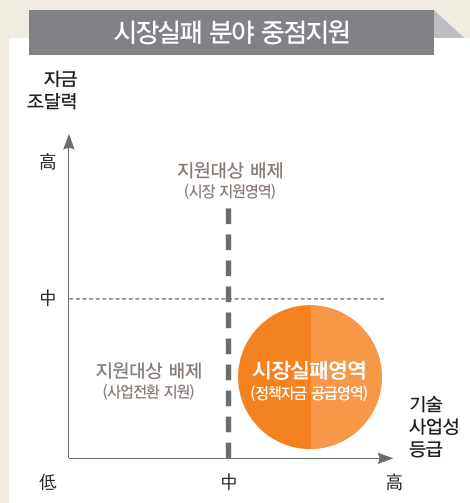
지원체계

**창업 → 성장 → 재도약**의  
기업 생애 맞춤형 지원체계(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를 통하여  
**중소기업 성장 지원**



## 역할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력이 취약한 시장실패영역 중소기업 중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집중 지원하여 우량기업으로 견인



2016년도 정책자금 융자 규모는 45,100억 원(당초 35,100억 원, 증액 1조 원)으로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확보와 자금애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총 21,224개 기업에 45,100억 원을 지원하였다. 2016년 9월, 기업 구조조정 등 대응을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국회)으로 융자 1조 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는 등 대내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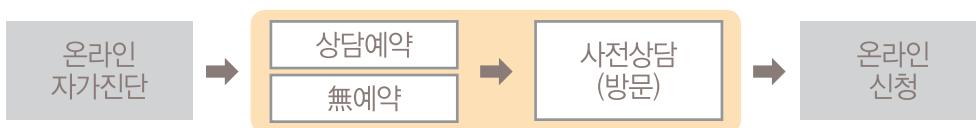
또한 중진공은 정책자금 지원 후 고용, 수출 등 성과창출 중소기업의 사업수행 성과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금리를 우대하는 등 중소기업이 수출 및 시설투자 중심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아울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적극 대응하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자금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도 하였다.

정책자금 융자사업은 창업 및 고성장기업 지원, 고용창출기업 금리우대 등 일자리 창출 노력을 통해 2016년 74,217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한, 수출지원 경영상업 연계, 금리우대 등을 통해 수출금융 지원업체 수출은 9.1% 증가했다.

자금신청을 위한 온라인 자가진단 항목 간소화와 더불어 신청서식을 통합하여 기업 부담을 줄이고 수요자 편의 증진에 기여하였다. 또한 온라인 자가진단 후 사전상담 시 수요기업의 대기시간을 감축하기 위해 사전상담 예약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업의 불편을 완화하였다.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신청 절차도**



또한 중진공은 청년 창업기업과 데스밸리 기업(업력 3~7년)의 만기 연장을 추진하고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형)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등 기업의 상환부담을 완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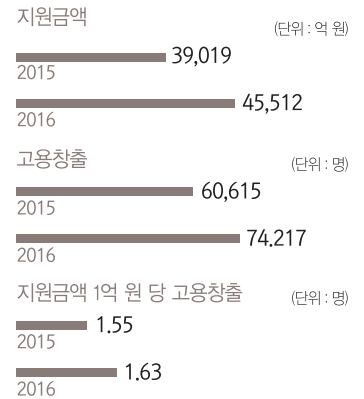
**정책자금 융자 지원실적**

(단위 : 억 원, 개)

구분	2016년 정책자금 융자 예산		2016년 지원업체수
	당초	최종	
창업기업지원	14,500	17,500	10,668
신성장기반	10,950	13,950	4,413
긴급경영안정	2,100	6,100	2,599
개발기술사업화	3,500	3,500	1,745
재도약지원	2,550	2,550	1,077
투융자복합	1,500	1,500	722
합계	35,100	45,100	21,224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일자리창출 성과**



**수출성과**

(단위: 억 불)

구분	2015	2016	증감
총 수출액	5,268	4,955	△5.9%
중소기업 수출액	962	995	3.4%
수출금융 지원업체 수출액	17.2	18.8	9.1%

**사전상담 예약제 도입으로 고객의 대기시간 최소화**



## 세부사업 추진실적

### | 창업기업지원자금 |

창업기업지원자금은 창업 활성화와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자금으로, 1998년 창업기업지원자금을 시작으로 2010년 재창업자금, 2012년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6년 중진공은 창업기업지원 예산 17,500억 원(창업기업지원자금 16,400억 원, 청년전용창업자금 1,100억 원)을 10,668개 업체에 지원하였다.

####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실적

(단위 : 백만 원, 개)

구분	예산	신청		대여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일반창업기업지원	1,640,000	10,943	2,749,101	9,190	1,640,000
청년전용창업	110,000	2,856	254,412	1,478	110,000
계	1,750,000	13,799	3,003,513	10,668	1,750,000

#### 가.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 ① 사업개요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조달력이 부족한 설립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지원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이다.

##### ② 사업추진현황

2016년도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사업은 16,400억 원을 조성하여 연 예산 100.0%를 집행하였다.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실적

(단위 : 백만 원, 개)

예산	신청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1,640,000	10,943	2,749,101	9,190	1,640,000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은 업력별로 설립 1년 미만 2,936억 원(17.9%), 설립 1년 이상~3년 미만 5,236억 원(31.9%), 설립 3년 이상~7년 미만 8,227억 원(50.2%)이 지원되어 창업초기기업 지원 목적을 적절하게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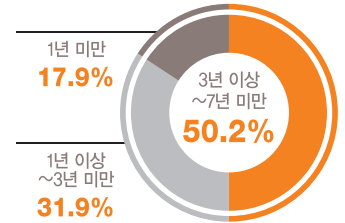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업력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 원, 개)

구분	신청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1년 미만	1,635	518,715	1,236	293,649
1년 이상~3년 미만	3,866	903,000	3,228	523,639
3년 이상~7년 미만	5,442	1,327,386	4,726	822,712
계	10,943	2,749,101	9,190	1,640,000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단위 : %)



지원업체의 매출액 규모는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기업이 56.8%(9,312억 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00억 원 미만 기업에 대해 전체 예산 중 92.8%(15,217억 원)를 집행하였다.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매출액 규모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 원, 개, %)

구분	신청		대여		비율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10억 원 미만	4,567	1,076,158	3,466	590,492	36.0
10 ~ 100억 원 미만	5,979	1,486,704	5,358	931,177	56.8
100억 원 이상	397	186,239	366	118,331	7.2
계	10,943	2,749,101	9,190	1,640,000	100.0

**③ 제도개선 사항**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기준을 대폭 확대하여 창업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데스밸리 영역의 중소기업 생존율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력 3~7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제도를 운영하였다.

## 나. 청년전용창업자금

### ① 사업개요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만 39세 이하 청년층의 창업촉진을 위하여 청년창업자에게 저금리(2.5% 고정금리)의 창업자금과 교육, 멘토링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1,478개 업체에 1,100억 원을 집행하였다.

### ② 사업추진현황

2016년도에는 융자상환금조정형으로 1,478개 업체에 1,100억 원을 지원하여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청년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실적

(단위 : 백만 원, 개)

예산	신청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110,000	2,856	254,412	1,478	110,000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이후 후속 연계지원으로 창업 초기기업의 사업화 애로해결을 위해 청년창업가 1,267명에 대해 석세스코칭 상담(1,676건)을 실시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18.1% 증가한 실적이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글로벌 진출 유망기업 100개사를 선정하고 수출지원을 통해 35개사 135만 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등 청년 창업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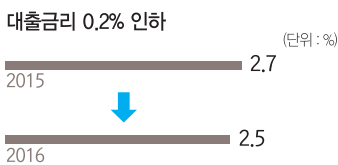
#### 청년전용창업자금 연계지원실적

(단위 : 개, 건)

구분	창업교육 (업체수)	멘토링		수출지원		
		멘토링 (회)	석세스코칭 (건)	상품페이지 (업체수)	디렉토리북 (업체수)	해외전시회 (업체수)
지원결과	989	5,887	1,676	98	98	24

### ③ 제도개선 사항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 및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2015년 2.7%에서 2016년 2.5%로 인하하였고, 대출기간을 기존 5년에서 6년(3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데스밸리 영역 기업지원 강화를 위해 상환기간 연장제도(+1~2년)를 신설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운영방식으로 개선하고, 청년층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다.



## | 신성장기반자금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 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신성장기반자금은 당초 구조개선자금 내 구조 개선사업,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과 협동화사업을 통합하여 2007년부터 신규로 추진되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효율화 방안에 따라 2009년에 명칭을 경영혁신자금에서 신성장기반자금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2010년에는 농공단지입주기업 지원사업을 신성장기반자금에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 ① 사업개요

신성장기반자금은 신성장유망, 협동화, 기술사업성우수, 가젤형기업전용,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으로 구분된다. 신성장유망은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자금과 초기 가동비, 기술개발비와 같은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협동화자금은 협동화실천계획 및 협업사업계획 승인기업을 지원한다.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은 기술평가등급 우수기업의 시설투자를 촉진하며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해 2014년 신설하였으며, 장기 저리로 시설자금 및 초기가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가젤형기업전용자금은 고용 및 매출액이 크게 뛰는 고성장(가젤형)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속성장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2015년에 신설하였으며, 최근 4년간 연평균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 20% 이상 고속 성장한 기업에 시설자금 및 초기가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은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신설하였으며, 자금지원을 통해 예비 고성장 기업을 육성한다.

## ② 사업추진현황

2016년 신성장기반자금은 신성장유망 8,541억 원, 가젤형기업전용자금 2,800억 원, 기초제조기업 성장자금 1,709억 원 등 총 4,413개 기업에 13,950억 원을 지원하며 성장 유망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 신성장기반자금 지원실적

(단위 : 백만 원, 개)

구분	예산	신청		대여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신성장유망	854,100	2,455	1,362,856	2,003	854,100
협동화자금	40,000	71	74,377	66	40,000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	50,000	56	65,216	56	50,000
가젤형기업전용자금	280,000	820	386,237	741	280,000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170,900	1,776	247,245	1,547	170,900
계	1,395,000	5,178	2,135,931	4,413	1,395,000

업력별로는 10년 이상 기업에 대한 신성장기반자금 지원실적이 8,662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62.1%)을 차지하였으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업에 4,077억 원(29.2%), 5년 미만 기업에는 1,212억 원(8.7%)을 지원하였다.

### 신성장기반자금 업력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 원, 개)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신성장유망	139	54,959	613	207,031	1,251	592,110
협동화	26	11,737	9	4,624	31	23,640
기술사업성우수	0	0	16	18,359	40	31,641
고성장(가젤형)	97	30,306	334	110,760	310	138,934
기초제조기업성장	230	24,167	623	66,878	694	79,856
계	492	121,169	1,595	407,651	2,326	866,180

## ③ 제도개선 사항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의 대출방식을 직접대출 방식뿐만 아니라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수요기업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다.

신성장유망자금 내에 중소기업청 소관 수출마케팅 사업과의 연계지원으로 '글로벌진출기업전용자금'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을 신설하여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 투자를 유도하였다.

## | 긴급경영안정자금 |

수출 또는 내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급 애로, 수출금융 확보 애로 및 재해피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거 구조개선자금 내 특별경영안정사업의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 재해복구지원사업과 수출금융지원사업을 통합하였고, 2009년부터 사업전환지원사업의 희생특례지원자금을 통합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개편하였다.

### ① 사업개요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내역사업으로는 수출금융지원, 재해복구지원, 일시적경영애로, 일반경영안정지원 자금이 있다. 수출금융지원은 수출계약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을 지원하고, 재해복구지원은 자연재해 또는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복구비용을 지원하여 재해중소기업의 사업정상화를 추진한다. 또한,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은 일시적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며, 2016년 일시지원 사업으로 편성된 일반경영안정지원자금은 원부자재 구입, 제품생산, 개발, 시장개척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한다.

### ② 사업추진현황

2016년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예산 6,100억 원(수출금융지원 2,295억 원, 재해복구지원 및 일시적경영애로지원 2,805억 원, 일반경영안정지원 1,000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특히, 개성공단 중단, 기업 구조조정, 지진, 태풍 등 대내외 악재에 신속히 대응하여 피해 중소기업의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였다.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 원)

구분	예산		신청		대여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수출금융지원*	229,500	542	206,731	671	229,500	
재해복구지원		97	20,438	93	14,800	
일시적경영애로지원	280,500	1,286	399,900	1,157	265,700	
일반경영안정지원	100,000	750	150,320	678	100,000	
계	610,000	2,675	777,389	2,599	610,000	

주) 수출금융지원은 예산 내 회전금융 방식으로 지원하여 신청보다 대여의 업체수 및 금액이 크게 집계됨

### ③ 제도개선 사항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재해자금예산을 일시적 경영애로지원과 공동예산으로 운용하여 자금이 적시에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대내외 환경 변화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파악·반영하고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예산을 신속히 추가 운영하여 개성공단 폐쇄(798억 원), 기업 구조조정(1,932억 원), 태풍 및 지진(148억 원) 피해기업을 지원하였다.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일반경영안정지원자금을 2016년 재도입 후 중소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에 기여하였다.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지원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750 → 1,250억 원)하였으며, 대출한도 확대, 회전한도 산정기준 개선, 이용기간 제한 폐지 등 수출금융 지원조건을 개선하였다.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 ①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한 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2000년부터 사업을 개시하였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시중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위하여 신용대출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

### ② 사업추진현황

2016년도에는 1,745개사에 3,500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배정된 예산 전액을 집행하여 우수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도모하였다.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실적

(단위 : 백만 원, 개)

예산	신청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350,000	2,003	562,348	1,745	350,000

기술유형별로 특허·실용신안·저작권 등록기술 1,522억 원(43.5%),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 참여기술 748억 원(21.4%),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술 409억 원(11.7%) 순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기술유형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 원, %)

구분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	332	74,783	19.0	21.4
특허/실용신안/저작권	786	152,213	45.0	43.5
Inno-biz	173	40,246	9.9	11.5
기업부설연구소	220	40,942	12.6	11.7
벤처기업	175	30,526	10.0	8.7
공인 인증 및 평가기술	5	900	0.3	0.3
기술이전	10	1,580	0.6	0.5
Main-Biz	44	8,810	2.5	2.5
계	1,745	350,000	100.0	100.0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기술개발로 인해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시중 금융권의 자금 대출이 어려운 기술개발기업에 신용대출(3,150억 원, 90.0%) 위주로 중점 지원하여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지원이 이루어졌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 원)

구분	신용	보증서	지식재산권	부동산 등	계
담보별	315,007	3,084	29,909	2,000	350,000

3 제도개선 사항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기술평가기관을 기존 4개 기관에서 11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IP 담보평가의 전문성을 높였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정부 R&D 성공판정기업을 선제 발굴 및 지원하였다. 그 결과 IP 담보대출은 2015년 222억 원에서 2016년 300억 원으로, 정부 R&D 성공판정기업 연계는 2015년 644억 원에서 2016년 748억 원으로 확대·지원하였다.

IP 담보대출

(단위 : 억 원)



정부 R&D 성공판정기업 연계

(단위 : 억 원)



〈참고〉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사업추진체계



## | 재도약지원자금 |

재도약지원자금은 실패경영인 및 부실징후 기업 그리고 위기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도 신설된 자금으로 업종전환 및 추가, 사업재편, FTA 피해기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전환(무역조정) 자금, 실패경영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재창업자금, 부실징후기업 갱생 목적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구조개선전용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 중진공은 재도약지원자금 예산 2,550억 원(사업전환 1,250억 원, 재창업 1,000억 원, 구조개선 300억 원)을 1,026개 업체에 지원하였다.

### 재도약지원자금 지원실적

(단위 : 백만 원, 개)

구분	예산	신청		대여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사업전환(무역조정)	125,000	335	167,603	314	125,000
재창업	100,000	677	171,022	526	100,000
구조개선	30,000	203	44,500	186	30,000
계	255,000	1,215	383,125	1,026	255,000

### 가. 사업전환자금지원

#### ① 사업개요

사업전환지원사업은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도록 융자,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 ② 사업추진현황

2006년 9월 사업을 개시한 이후, 2016년까지 총 1,898개사의 사업전환계획을 승인하여 2,694개사에 13,924억 원의 자금을 집행하였다. 2016년에는 169개사의 사업전환계획을 승인하고, 273개 업체에 1,159억 원을 지원하였다.

### 사업전환자금 지원실적

(단위 : 백만 원, 개)

예산	신청액	직접대출		대리대출		합계	
		업체수	대여액	업체수	대여액	업체수	대여액
115,880	151,353	225	67,844	48	48,036	273	115,880



사업전환 승인유형별 실적을 살펴보면, 업종추가가 사업전환계획 승인업체 169개사 중 96.4%인 163개사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업종전환은 3.6%인 6개사이다. 세부업종별 승인실적을 살펴보면 유통(55개, 32.5%), 기계·금속(44개, 26.0%), 기타(25개, 14.8%), 화공(13개, 7.7%) 순으로 많았다.

또한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 기업의 신속한 유류자산 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산거래 중개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전환 성공사례집 제작 및 사업광고, 기획홍보기사 보도 등을 통해 사업전환 사업의 활성화와 관심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 ③ 제도개선 사항

조선업 등 산업구조조정 기업 대상 융자한도 확대(45억 원 → 70억 원)와 신속지원을 위한 승인기간 단축(34.6일 → 28.6일)으로 사업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지난해 8월 시행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사업전환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도 사업전환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전환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 나. 무역조정자금지원

### ① 사업개요

무역조정지원사업은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것으로 확실한 경우에 융자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해당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② 사업추진현황

2007년 4월 무역조정지원법 시행 후 2008년부터 2016년까지 106개 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약 403억 원의 융자를 누적 지원하고 있다. 2016년에는 41개사에 91억 원을 지원하였다.

### 무역조정자금 지원실적

(단위 : 백만 원, 개)

예산	신청액	직접대출		대리대출		합계	
		업체수	대여액	업체수	대여액	업체수	대여액
9,100	11,600	38	7,600	3	1,500	41	9,100

2007년 12월 제조업에 국한되었던 지원범위를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2012년 1월에는 지정요건을 완화(매출액 등의 무역피해지표 감소율 25% → 10%)하였으며, 2012년 7월 중진공이 신청서류 작성지원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무역조정지원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운영한 결과,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및 융자 지원이 증가하였다.

연도별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및 용자 지원 실적

(단위: 백만 원, 업체수)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합계
무역조정 기업지정	2	3	2	0	8	24	26	17	24	106
용자지원	200	500	850	200	1,485	8,299	10,320	9,360	9,120	40,334

신문, 라디오, 전광판, 인쇄매체, 우수 사례집 제작 등 종합적인 홍보 채널을 활용하고 업종단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무역조정지원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제도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FTA 확대에 대비하여 기업이 무역조정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절차 간소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③ 제도개선 사항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소요시간



2016년 7월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을 통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서 수행하던 FTA 무역 피해조사 및 심의절차를 중진공으로 이관하여 처리함으로써,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소요시간이 기존 41일에서 24일로 단축되었다.

다. 재창업자금지원

① 사업개요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여 기술·경험 등 사회적 자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기업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금으로, 2016년도에는 526개 업체에 1,000억 원을 집행하였다.

② 사업추진현황

2016년도 재창업자금은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수요 발굴 및 제도개선 노력으로 전년대비 예산이 증액(700억 원 → 1,000억 원)되었음에도 집행실적을 100% 달성하는 등 실패기업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제공하였다.

재창업자금 총괄 지원실적

(단위 : 백만 원, 개)

예산	신청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100,000	677	171,022	526	100,000

담보별 지원 현황을 보면 전체 1,000억 원 중 직접대출 지원액이 91.3%(913억 원)이고 이중 신용대출이 85.2%(778억 원)으로 기술·사업성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재창업기업이 원활히 재기를 추진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창업자금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 원)

구분	대리대출	직접대출				합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소계	
담보별	8,697	77,831	3,791	9,681	91,303	100,000

신청자격별로 살펴보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사업실패로 인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자, 법원의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자' 등의 순으로 지원 비중이 높았다. 특히 '저신용자 및 자금애로자'에 대한 지원이 80.3%를 차지하여 과거 사업실패 이력이 있지만 채무조정이 일정 완료되었음에도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하여 민간 금융권 이용이 현실적으로 제한된 재창업기업인에게 재기 기회를 적극 제공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창업자금 신청자격별 지원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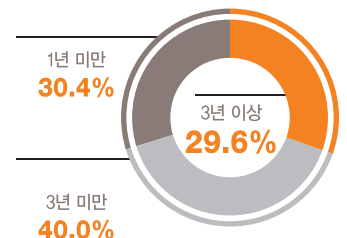
(단위 : 백만 원, 개사, %)

신청자격	업체수	대출금액(B)	비율(B/A)
저신용자(7등급 이하)	271	55,285	55.3
파산·회생	94	15,503	15.5
자금애로(5, 6등급)	122	24,992	25.0
신용등급(3, 4등급)	6	680	0.7
신용불량	33	3,540	3.5
합계	526	100,000	100

업력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1년 미만(예비창업자 포함) 30.4%, 3년 미만 40% 등 재창업 초기기업 위주로 지원함으로써, 창업초기 자금조달 애로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창업자금 업력별 지원실적

(단위 : %)



③ 제도개선 사항

실패경영인의 재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2015년 700억 원 → 2016년 1,000억 원)하였고, 범죄사실을 기반으로 예비적으로 평가하는 '성실경영평가', 재창업기업의 형태에 따라 지원하는 '유형별 분류체계'를 도입하여 선별적 지원의 틀을 마련하였으며 신용회복위원회 및 신기보(보증서부대출)와의 협업을 통해 기금건전성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 라. 구조개선전용자금지원

### ① 사업개요

구조개선전용자금은 부실징후 중소기업에 대하여 폐업 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조기 정상화 및 재도약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운전자금에 한해 2015년 신설되었다.

### ② 사업추진현황

2015년 1월 신규 사업으로, 2016년 총 186개사에 300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위기기업의 조기 정상화에 기여하였다.

#### 구조개선전용자금 총괄 지원실적

(단위 : 백만 원)

예산	신청액	지원결정액	대여업체수	대여액
30,000	44,500	30,000	186	30,000

신청요건별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진로제시컨설팅과 연계하여 지원하였던 기업 비중이 65.4%(196.4억 원)로 가장 높았으며, 중진공 예비경보 및 신기보 지정 경영애로기업을 요건으로 하는 경영개선진단기업 29.8%(89.3억 원), 신용불량·회생인가 기업 3.2%(9.5억 원), 은행권의 추천을 통해 지원하는 구조개선진단기업 1.6%(4.8억 원) 순이었다.

#### 구조개선전용자금 신청요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 원, %)

지원대상	신청		대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율
구조개선진단 (은행권 추천)	4	1,600	3	480	1.6
경영개선진단 (중진공, 신기보 지정)	60	12,800	57	8,930	29.8
신용불량·회생인가	10	3,800	5	950	3.2
진로제시컨설팅	129	26,300	121	19,640	65.4
계	203	44,500	186	30,000	100.0

### ③ 제도개선 사항

진로제시컨설팅과의 연계지원율을 높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였고 은행권 및 신기보와의 업무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선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자금지원업체에 대해 멘토링을 실시하여 부실을 저감을 위해 노력하였다.

## [참고] 재도전 종합 지원센터

경제침체 지속, 저성장 경제환경 하에서 위기 및 실패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바, 경영 애로 극복과 원활한 재도전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 창구의 필요성에 의해 2014년 서울 재도전종합지원센터의 개소를 시작으로 2016년 12월 말 현재 7개소가 운영 중이다. 사전 전문상담, 자금지원, 교육, 사후멘토링, 연계지원 등 재도전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역동적 창업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고 있다.

사전상담은 자금 및 컨설팅 상담, 실패경영인의 채무조정방안을 모색하여 재기지원의 발판을 마련하여 주는 신용회복 및 개인회생 상담, 위기기업의 회생절차를 안내해주는 법인회생상담, 인수·합병 등 기업의 구조조정 방안을 안내해주는 M&A 상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6년 총 1,896건 상담이 실시되었으며, 이중 자금 관련 상담은 52%, 경영 애로, 회생·파산 등 자금 외 상담은 48%가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상담실적총괄

(총 1,896건 상담/1,136회)

일반상담		전문상담		상담방식			
항목	건수	항목	건수	방문	전화	출장	합계
경영애로전반	303	신용회복	166	941	181	14	1,136
재창업자금	887	법률상담	37				
재창업교육	54	개인회생, 파산	128				
구조개선전용자금	98	M&A	5				
재기컨설팅	142						
세무상담	50						
기타(타사업연계 등)	26						
소계	1,560		336				

상담만족도는 상담의 효과성, 전문성, 성실성, 신뢰도 측면에서 96.2%로 집계되어 위기 및 재도전 기업에 특화된 상담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상담 만족도

(단위 : 개)

구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합계
상담효과성	442	284	26	4	0	756
상담전문성	438	280	37	1	0	756
상담성실성	526	208	22	0	0	756
상담신뢰도	498	234	22	2	0	756
합계	1,904	1,006	107	7	0	3,024

## 사업개요

## 사업추진현황

재창업자금 및 구조개선전용자금 지원 후 정례적(분기별) 사후멘토링을 통해 성과 모니터링 및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추가자금 지원, 마케팅, 연수, R&D 등 연계지원을 통하여 지원기업의 생존율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2016년 사후멘토링은 총 1,754건 실시되었으며, 경영전략, 대출금 점검, 경영 애로 파악, 연계지원 안내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사후멘토링 실시 현황

(단위 : 건)

구분	재창업	구조개선	계
건수	1,321	433	1,754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사후멘토링 주요내용

(단위 : 건)

구분	경영전략	대출금점검	경영 애로	연계지원	계
건수	1,856	1,158	1,763	2,021	6,798

## 제도개선 사항

재도전맞춤형 원스톱 서비스의 확대 및 고객접근성 향상을 위해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추가 개소 (4개소)하였으며, 2016년 9명 증원을 기반으로 센터별 내부직원 2명 컨설턴트 1명(서울 2명)으로 운영 중이다. 또한, 집적효과 제고를 위해 서울 재도전종합지원센터와 재창업 보육센터 통합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사후멘토링을 신규 도입하여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 밀착 지원을 강화하였다.



##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미래성장가치와 기술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 이익공유형 대출과 성장공유형 대출이 있다. 2011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후, 2012년부터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722개사에 1,500억 원을 지원하였다.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지원실적

(단위 : 백만 원, 개)

구분	예산	신청		대여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이익공유형 대출	110,000	765	170,999	679	114,300
성장공유형 대출	40,000	55	49,471	43	35,700
계	150,000	820	220,470	722	150,000

### 가. 이익공유형 대출

#### ① 사업개요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 있는 창업기업에 저금리 신용대출 후 기업의 영업성과에 따라 이익 연동이자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2011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

#### ② 사업추진현황

2016년도에는 679개사에 1,143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초기 금융비용 절감 및 담보부담 해소를 통해 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에 일조하였다.

업종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지원 비중이 61.1%, 정보 및 유통 등 기타 업종이 38.9%로 제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으며, 제조업 중에서는 기계금속, 잡화음식료, 섬유화학, 전기전자 순으로 지원비중이 높았다.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업종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 원, 개, %)

구분	신청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비율
기계금속	188	40,460	164	28,480	24.9
섬유화학	96	23,224	88	15,690	13.7
전기전자	49	10,425	45	7,270	6.4
잡화음식료	122	27,990	110	18,400	16.1
기타	310	68,900	272	44,460	38.9
계	765	170,999	679	114,300	100

③ 제도개선 사항

지원대상을 업력 7년 미만 기업으로 제한하여 창업기업 지원을 강화하였고, 대출 초기 과도한 이자 납부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도별 이자 상한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참고〉 이익공유형 대출사업 추진체계



나. 성장공유형 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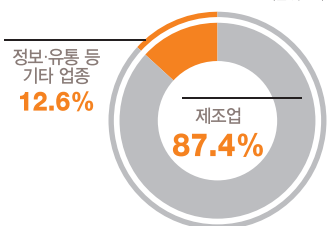
①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대출방식으로 2008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

② 사업추진현황

2016년도에는 43개사에 357억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성장공유형 대출 업종별 지원현황 (단위 : %)



업종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지원 비중이 87.4%, 정보 및 유통 등 기타 업종이 12.6%로 제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으며, 제조업 중에서는 기계금속, 잡화음식료, 전기전자, 섬유화학 순으로 지원비중이 높았다.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업종별 지원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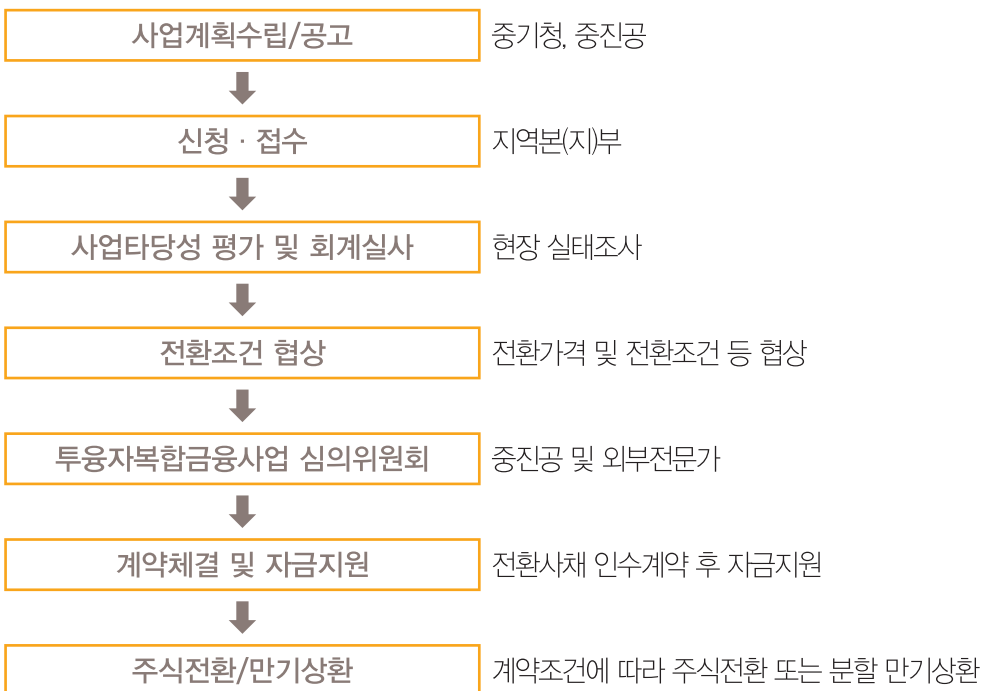
(단위 : 백만 원, 개, %)

구분	신청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비율
기계금속	26	26,121	19	17,500	49.0
섬유화학	4	3,600	5	3,800	10.6
전기전자	9	7,300	6	4,600	12.9
잡화음식료	6	5,300	6	5,300	14.8
기타	10	5,650	7	4,500	12.6
계	55	47,971	43	35,700	100.0

③ 제도개선 사항

투융자심의위원회 개최지역 편중 해소(기존 : 진주(77.8%), 서울(22.2%) → 신규 : 진주(40%), 서울(30%), 대전(30%) 및 개최방식의 정례화(기존 : 수시 개최 → 신규 : 매월 넷째 주 금요일)를 추진하였고, 2014년부터 추진한 프로젝트금융을 사업의 부실위험 증대로 인하여 잠정 중단하였다.

〈참고〉 성장공유형 대출사업 추진체계



성장공유형 대출지원기업 민간 후속투자유치 실적 (단위: 개, 억 원)

후속투자액  
 773억 원 (2016)  
 지원금액  
 285억 원 (2016)  
 업체수  
 33개 (2016)

성장공유형 대출 연도별 투자수익 현황 (단위: 억 원)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계
11	2	101	56	168	338

# 마케팅 · 글로벌화

## 사업개요

마케팅 및 글로벌화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제74조에 추진근거를 두고 있다.

1979년 해외기술도입 및 중소기업 해외투자지원 등 해외산업협력지원을 시작으로 1996년 공공부문 최초 온라인 B2B사이트인 고비즈코리아(Gobizkorea) 운영, 1998년 수출인큐베이터(BI)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8년 해외마케팅 지원 창구 단일화 조치 및 2013년 중소·중견기업 총력 수출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현재의 중진공 수출마케팅 지원 사업이 완성되었다.

중진공 마케팅 및 글로벌화 지원사업은 31개 지역본·지부의 국내 지원 인프라와 정책자금 등 다양한 연계지원 수단을 통해 유망내수기업 및 제품을 '발굴 → 육성 → 온·오프라인 해외진출' 지원하는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타 기관과 차별화된 특징이다. 또한 지자체, 수출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원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 마케팅 · 글로벌화 주요 사업 및 추진체계

중진공 고유사업	협업사업	유관기관 사업
<b>제품소싱 기업발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신제품발굴지원</li> <li>• 中企제품간접광고지원</li> <li>• 민간대형유통망연계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li> <li>• 수출BI</li> <li>• e-Power300</li> </ul>	(kot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지사화사업</li> <li>• 해외비즈니스출장사업</li> <li>• 해외투자진출지원 등</li> </ul>
<b>제품현지화 수출기업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전시판매장 운영</li> <li>•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li> <li>• 차이나하이웨이프로그램</li> </ul>		(무역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활용 컨설팅 및 교육</li> <li>• 무역통계서비스 제공</li> <li>• 무역아카데미 운영 등</li> </ul>
<b>수출역량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연계형 기술사업화</li> <li>• 온라인 수출 플랫폼 운영</li> <li>• GMD사업</li> </ul>	<b>공동사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수기업 수출기업화</li> </ul>	(무역보험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보험 · 보증제공 등</li> </ul>
<b>온·오프라인 해외진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민간네트워크활용사업</li> <li>• FTA대응역량강화</li> </ul>		

또한, 수출마케팅사업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수출성공 및 향상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금리환급, 수출전용자금 지원규모 확대 추진을 통한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출성장단계별(내수/초보 → 수출초보 → 수출유망 → 글로벌강소)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다.

중진공은 유망 중소기업(제품) 발굴 및 테스트마케팅 강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수출성장단계별 맞춤형·패키지 지원, 수출지원기관 간 협업, 온·오프라인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2016년 총 56.8억 불의 수출성과\*(2015년 46억 불)를 달성하였다.

\* 2016년 사업 참여기업의 수출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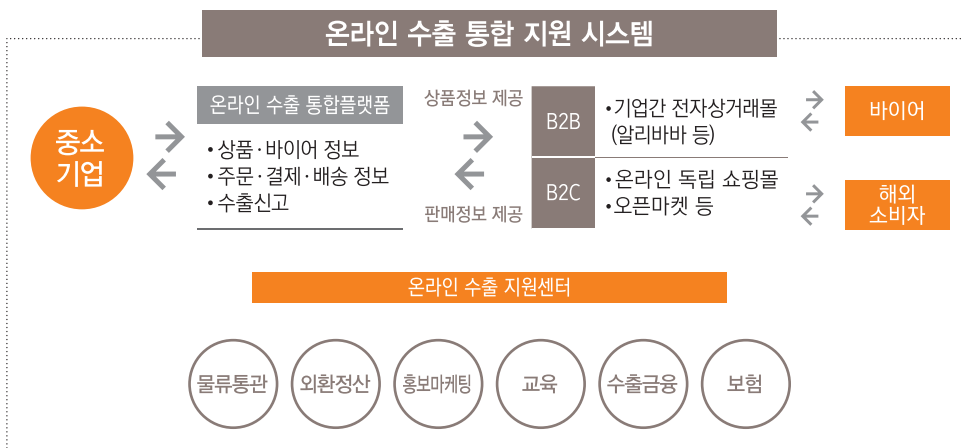
산업부 주관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목표 : 5,000개사)에서 중진공은 2,275개 내수기업을 수출기업화하여 기관 목표(1,200개사) 대비 189.6% 초과 달성으로 선도기관인 kotra보다 더 높은 성과를 기록했고, 이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2017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목표 : 6,000개사)에 최대 목표(2,588개사)를 부여받았다.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기관별 목표 및 실적

(단위 :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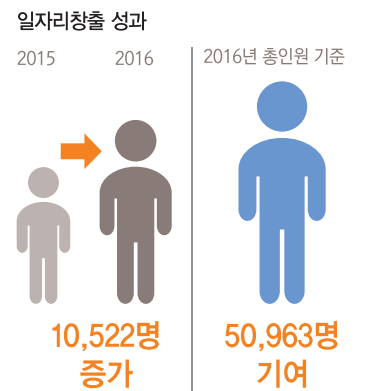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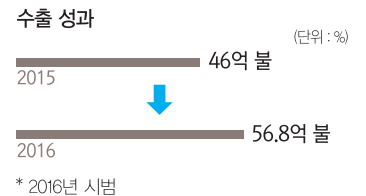
기관명	중진공	kotra	무보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기타	합계
목표(개사)	1,200	2,240	600	400	400	160	5,000
실적(개사)	2,275	1,882	967	284	264	158	5,830
달성비율(%)	189.6	84.0	161.2	71.0	66.0	98.8	116.7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지원 여건 개선을 위해 온라인 수출 지원 확대 필요성 등 근거자료를 적극 제시하여 「중소기업 해외 직접 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안)」 재발의 및 상정(2016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에 기여하였으며, 온라인 수출 수과정정을 원스톱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여 특허 출원하였다.



아울러, 민간 수출전문기업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출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GMD (글로벌 시장개척자)사업 신규 추진,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수과정(수출준비 → 해외영업 → 수출) 밀착 지원으로 284개사, 323백만 불(참여기업의 전년대비 수출실적 12.2%↑)의 성과를 창출하였고, 2017년부터 추진 예정인 수요자 선택형 수출바우처 사업의 2차 관리기관으로 지정(중진공, kotra)되어 수요자 맞춤형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 취업유발계수: 수출 10억 원 당 7.8명 고용효과 적용

## 세부사업 추진실적

### | 중기제품거래촉진(HIT500) |

HIT500이란 자체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시장진입 초보 중소기업의 유망 제품을 발굴하여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온라인마케팅과 판로지원을 통해 제품의 시장 인지도 제고 및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10년부터 시작된 동 사업은 중기제품을 소비자 및 전문가 평가방식을 통해 선정한 후, 웹사이트 내 제품 홍보페이지 제작 및 온라인전시장 구성, 소비자 평가와 제품 체험을 통한 입소문마케팅, 판로지원 등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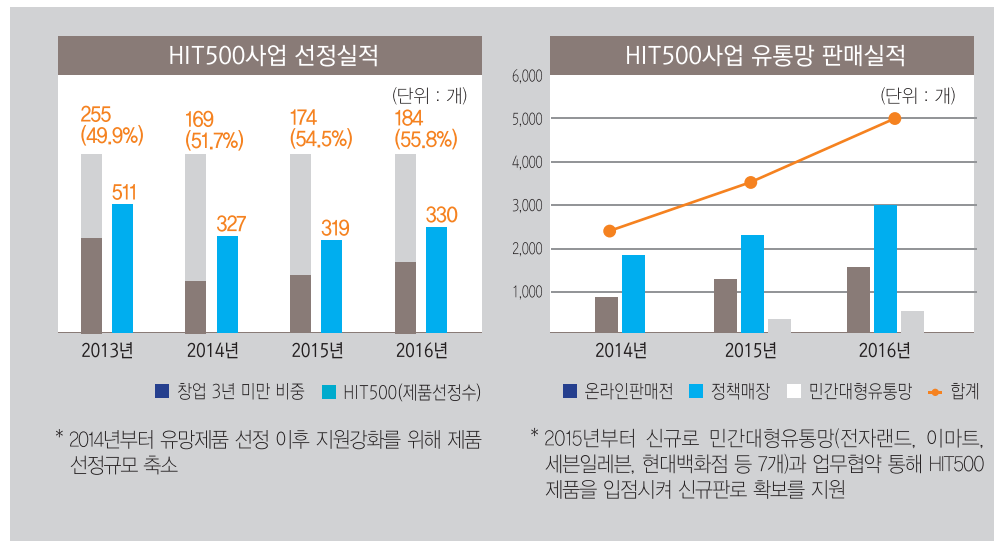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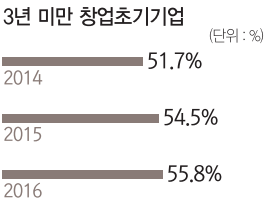
중기제품 발굴	온라인홍보	입소문마케팅	유통망 진출	타사업 연계지원
온라인 접수+31개 지역본(지)부 발굴 (평가 및 선정)	제품홍보페이지 → 홍보뉴스레터 → SNS 홍보	소비자평가 → 제품체험단	온·오프라인 판매 • 온라인특별판매 기획관 • 정책매장	마케팅지원사업 • 구매상담회, 제품홍보 등 해외마케팅지원 • 온라인수출지원 등

3년 미만 창업초기 기업의 우수제품을 발굴



특히 2016년의 경우 청년창업사관학교와 협업하여 마케팅교육을 추진하고, 3년 미만 창업초기기업의 우수제품을 발굴하여 유통망 진출을 집중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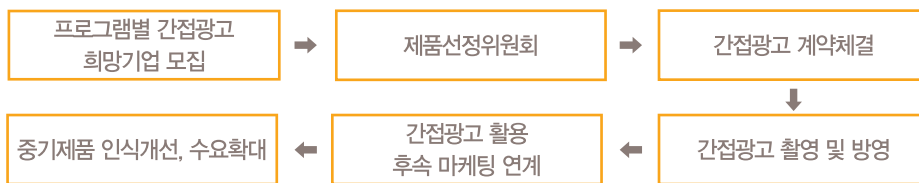
HIT500사업에 선정된 유망제품은 국내 정책매장(행복한백화점 등 15개)과 온라인오픈마켓(G마켓, 11번가 등)내 HIT500제품 특별판매기획관 운영 등 판매 지원을 통해 2016년 4,993백만 원의 신규 판매를 하는 등 내수 마케팅지원 사업으로써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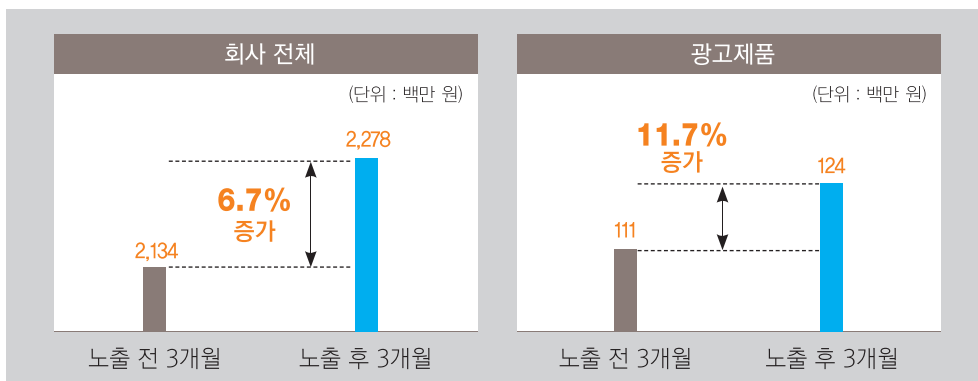
## | 중기제품간접광고지원(PPL) |

중기제품간접광고지원사업은 자체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며, 제품 노출효과가 높은 TV·웹프로그램 간접광고(PPL)를 통해 중기제품의 인식개선 및 국내외 판로 확대를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중기제품간접광고지원사업 추진 절차도



중기제품간접광고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정식사업으로 추진(2014년 시범사업 운영)하여, 2016년 1년간 18개 TV·웹 프로그램에 90건의 PPL을 시행하여 소비자들의 인식개선을 유도하였다. 간접광고지원사업에 선정된 제품은 제작사 간 시나리오 작업부터 촬영현장 대응까지 PPL을 위한 전체 프로세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PPL 전·후 3개월 광고 제품 매출이 평균 11.7%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 | 해외 유통망 진출사업 |

해외 유통망 진출사업은 해외 유수의 유통망에 B2C(소비재) 위주의 중소기업제품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가 미흡하고,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하여 자력으로 해외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중진공에서 해외진출 관련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유통망 진출이 유망한 중소기업 우수제품(Made in Korea)에 대해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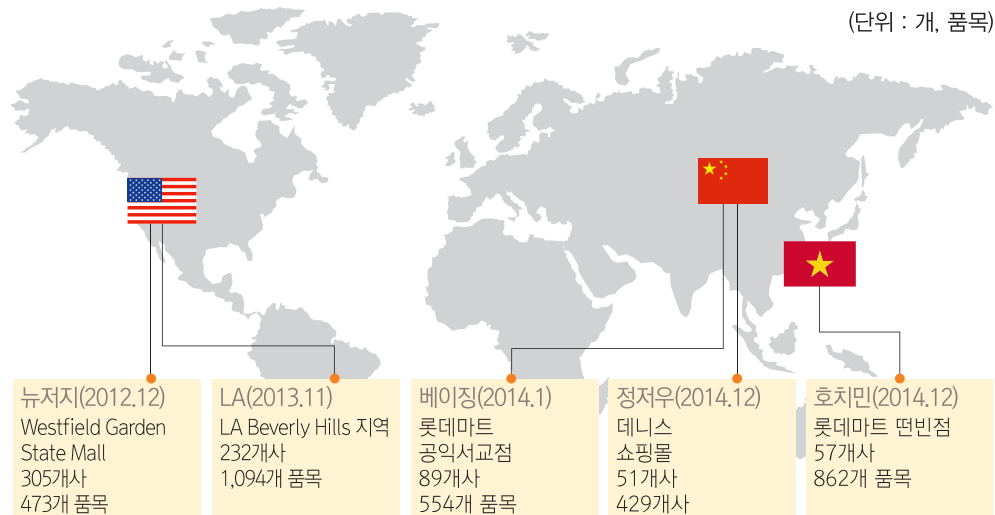
해외 유통망 진출사업은 국내생산 우수제품의 DB를 구축한 후 해외 바이어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진출 상품의 현지화를 위한 코칭·실행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해외 물류 및 A/S센터 운영, 해외전시판매장 운영, 유통망 형태별 직접진출 프로모션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해외 유통망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판매 및 현지 유통망과 연계하는 안테나숍 역할을 하는 해외전시판매장은 미국, 중국, 베트남 등 3개국 5개소에 설치·운영되어 2016년 누적 총 734개사 3,412개 품목 입점을 지원하였다.

중기제품 전용 해외전시판매장 설치 현황

(2016년 12월 기준)

(단위 : 개, 품목)



해외 유통망 직접진출 프로모션으로는 중국 온·오프라인 융합마케팅, 상품판촉전, 바이어초청상담회 등 해외유통망 판로 개척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하여 소비자 직접 및 연계판매 91억 원, 프로모션 100억 원 등 2016년 한해 총 191억 원의 수출실적을 기록하였다.

2013년 사업시행 후 해외 유통망 진출지원 기반 구축 시기를 거쳐 2016년도에는 중소기업 상품소싱 시스템 개편, 사업 및 수행기관, 해외전시판매장 관리체계 개편 등 사업체계 고도화를 통하여 매출 및 글로벌화 진출 성과 확대를 이루었다.

## | 온라인수출지원 |

온라인수출지원(Gobizkorea)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 지원을 위하여 상품페이지 제작을 통한 글로벌 홍보마케팅,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및 검색엔진 마케팅과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홍보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마케팅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1996년부터 시작되었다.

### ① 온라인 수출인프라 구축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 및 상품페이지 제작, 무료 웹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Gobizkorea(www.gobizkorea.com)를 기반으로 46,415개사 189,647개 상품정보를 DB화하여 국내상품 소싱을 원하는 해외바이어와 국내기업 간의 해외거래 네트워크망 구축을 지원하였다.

2016년에는 1,000개사의 상품페이지 제작과 120개사의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을 통해 총 12,698천 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였다.

### ② 해외 홍보마케팅 및 사후관리 지원

온라인 무역트렌드 변화에 따라 다양한 온라인 홍보마케팅과 글로벌마케팅 교육, 수출상담회도 진행하였다. 구글, 야후 등 바이어들이 주로 이용하는 해외 유명 포털사이트에 검색엔진최적화(SEO) 방식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홈페이지를 상위노출시킴으로써 신규 바이어를 발굴하는 검색엔진마케팅 지원사업을 60개사에게 지원하였다.

또한, 2016년에는 할랄시장 타겟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하여 바이어 맞춤정보를 현지어로 제공하는 온라인수출관에 할랄관을 신규 추가 구축하여 총 8개관을 구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신흥시장 공략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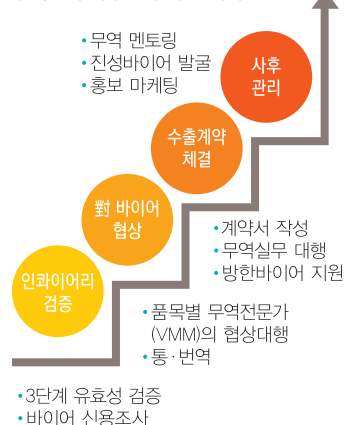
아울러, 고비즈코리아 등을 통해 내도하는 해외바이어의 구매오퍼 대응 애로 해결을 위해 「인콰이어리 검증 ▶ 對 바이어 협상 ▶ 수출계약 체결 ▶ 사후관리」까지 무역 쏘 단계를 지원하는 구매오퍼 사후관리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총 13,249건의 사후관리 실적을 달성하였다.

인프라 구축 및 홍보마케팅과 구매오퍼 사후관리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여 2016년 총 4,398만 불의 수출을 달성하였다.

할랄홍보관 영어



구매오퍼 사후관리 사업 체계도



온라인 수출지원사업 지원실적

(단위 : US 천 달러, 건수)

세부사업명	실적	수출실적
상품페이지 제작	1,000	12,221
홈페이지 제작	120	477
검색엔진마케팅	60	3,510
온라인수출관	600	12,508
구매오퍼사후관리	13,249	15,261
합계	15,029	43,977

| 글로벌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B2C) |

해외 온라인쇼핑몰(B2C) 판매대행 사업은 아마존, 큐텐 등 세계 유명 글로벌 오픈마켓에 B2C (소비재) 위주의 중소기업제품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브랜드 인지도가 미흡한 중소기업이 연평균 15% 이상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교역 시장에서 전략적으로 글로벌 오픈마켓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동 사업은 외국어 인력과 인프라의 부족으로 글로벌 쇼핑몰 진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쇼핑몰 입점부터 판매, 배송까지 일괄 지원한다. 최종적으로는 상품컨설팅, 해외 물류 및 A/S센터 운영, 고객 C/S, 성과분석 및 사후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사업 참여기업이 글로벌 오픈마켓에 진출하여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해외 온라인쇼핑몰(B2C) 판매대행 사업 지원실적

(2016.12.31일 기준, USD=1,173원)

(단위 : US 천 달러, 백만 원, 개)

구분	계약	상품등록		성과		
		기업수	제품수	판매건(개)	판매액 (USD 천 달러)	판매액 (백만 원)
라쿠텐	223	182	987	1,844,270	2,756.90	3,234
아마존	333	276	3,363	789,930	8,190.65	9,608
이베이	285	239	1,794	17,838,704	5,913.04	6,936
큐텐	177	143	1,326	218,199	2,771.60	3,251
타오바오	318	231	1,174	231,069	2,933.19	3,441
합계	1,336	1,071	8,644	20,922,172	22,565.38	26,470



2016년도에는 글로벌 오픈마켓 판매전문기업 관리체계 개편, 업체규모 확대, 프로모션 진행 등 사업체계 고도화를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이루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1,336개 기업이 8,644개 제품의 상품페이지 제작 및 번역, 쇼핑몰 등록을 진행하여 총 22,565천 불(265억 원)의 수출실적을 기록하였다.

아울러, 기존 재직자와 예비창업자(대학생) 구분없이 교육을 진행한 것에서, 2016년도부터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대학생을 구분한 2-Track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는 총 4회의 파워셀러 교육 및 매칭상담회를 진행하였고, 대학생을 대상으로는 총 5회의 전자상거래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류가 강한 중국 및 동남아 지역을 기반으로 한국관을 구축·운영하여 중소기업이 해외 오픈마켓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



대학생 교육



## | 글로벌바이어 구매알선 지원사업 |

글로벌바이어 구매알선 지원사업은 특정 상품 구매를 희망하는 해외바이어에게 해당 상품을 제조·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국내 중소기업을 발굴 및 알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Gobizkorea 영문사이트를 통해 해외바이어의 신청을 접수 받아 진행한다.

2006년 중소기업수출경쟁력 강화대책(안)으로 시작되어, 2008~2009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 수출실적 42백만 불, 2013년 49백만 불에 이어 2014년에는 53백만 불, 2016년에는 60백만 불의 수출실적을 창출하였다.

국가별 해외바이어 알선지원(TOP10)

(단위: 건)

국가명	해외바이어 알선지원 수
홍콩	250
싱가포르	169
인도	148
말레이시아	143
중국	138
미국	124
베트남	111
캐나다	80
사우디아라비아	71
영국	67
기타	909
합계	2,210

중진공 지역본·지부의 지역 인프라를 활용, 해외바이어가 상품매칭을 원하는 최적의 중소기업을 발굴, 매칭하는 해외바이어 알선을 지원하고, 국내 중소기업과의 상담을 위해 방한하는 해외바이어에게 중소기업 동반방문, 통역, 무역상담, 추가 제품소싱 등을 후속 지원하는 방한바이어 지원서비스를 운영하였다. 방한하는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상담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과의 현장미팅 총 133건에 대하여 거래조건, 견적, 벤더등록 등 구체적인 협상 진행을 지원하였다.

특히, 정부정책 목적성에 부합한 수출지원을 위하여 수출초보기업 해외바이어발굴 지원 사업을 확대하였다. 이에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HIT500 참여기업, 해외유망 입점기업, 지역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참여기업 중 수출초보기업 70개사를 대상으로 제품홍보를 통한 바이어 연계, 유효 인콰이어리 발굴, 무역실무 지원 등을 지원하였다.

국가별 수출초보기업 수출 거래성사실적(TOP5)

(단위: 건, US 천 달러)

국가명	거래성사 건수	거래성사 금액(천 불)
중국	18	3,025
사우디아라비아	3	1,700
미국	19	568
캐나다	7	190
홍콩	7	136
기타	12	197
합계	66	5,816

해외바이어 알선 이후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수출성사율을 제고하였으며 사업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바이어 대응전략 교육, 온라인 무역상담실 운영 등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개발 및 강화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재구매 바이어에 대한 재구매 프리미엄 제공, 구매중단 바이어 대상 재지원 프로그램 실시 등 기존 해외바이어의 재구매율 확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바이어 등급관리를 체계화하였으며 뉴스레터 발송, SNS 활용, 미디어파트너십 구축 등 바이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업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 글로벌바이어 구매알선 지원실적

(단위: US 천 달러, 건, 개)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바이어 알선	1,218건	1,380건	1,506건	1,706건	1,908건	2,034건	2,210건
방한바이어 지원	29건	107건	122건	130건	130건	132건	133건
수출초보기업 해외바이어 발굴 지원			60개사	70개사	70개사	70개사	70개사
수출실적	30,203천 불	35,501천 불	42,042천 불	49,018천 불	53,030천 불	56,422천 불	60,409천 불

## |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

2009년부터 중진공은 해외마케팅 창구 단일화 조치에 따라 지역자치단체, KOTRA 등과 협력하여 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해외전시회 34회, 무역사절단 132회, 수출상담회 3회, 지역특화해외마케팅 18회 등 총 187회 사업추진을 통해 1,891개사의 1,110백만 불 수출계약체결을 지원하였다.

###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상담 및 수출계약 성과

(단위 : 백만 불, 회, 개)

유형	실적		성과		
	횟수	참가 기업수	상담금액 (백만 불)	상담 횟수	계약체결액 (백만 불)
해외전시회	34회	325개	621	92,622	220
무역사절단	132회	1,133개	4,495	15,852	880
수출상담회	3회	94개	83	237	10
지역특화마케팅	18회	339개	-	-	-
계	187회	1,891개	5,199	108,711	1,110

또한,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사업 참여기업의 55.5%인 1,049개사를 대상으로 중진공 자금, 연수, 건강진단 등 연계지원을 통해 수출실적을 제고하였다.

###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연계지원 실적

(단위 : 건, %)

사업명	참가 업체수(a)	연계지원(건수)				연계율 (b/a, %)
		정책 자금	연수	건강 진단	계(b)	
해외전시회	325	87	60	29	176	54.2
무역사절단	1,133	353	164	148	665	58.7
수출상담회	94	19	21	14	54	57.4
지역특화	339	90	24	40	154	45.4
계	1,891	549	269	231	1,049	55.5

## | 수출컨소시엄사업 |

수출컨소시엄사업은 중소기업 관련 업종간 컨소시엄(10개사 내외)을 구성해 사전시장조사, 시험·인증 및 매뉴얼제작 등 현지화 컨설팅, 공동브랜드 제작 등 현지마케팅 및 사후관리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중소기업청의 수탁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2013년 3개, 2014년 4개, 2015년 16개에 이어 2016년 사업의 경우 총 12개의 컨소시엄을 구성·운영 중이다.

### 수출컨소시엄사업 추진현황

(단위 : 건, 개)

No.	컨소시엄명	품목	진출지역	수행사	참여기업
1	대전 충남 식품, IT 수출컨소시엄	식품, IT	중국, 베트남	(주)비에스알코리아	15
2	충북 뷰티, 바이오 수출컨소시엄	뷰티, 바이오	중국	(주)신승차이나컨설팅	7
3	강원 웰니스식품 수출컨소시엄	웰니스식품	중국	길림성용상상무유한공사	19
4	광주 전남 농수산물 수출컨소시엄(중국)	농수산물	중국	(주)원동투자그룹	8
5	광주 전남 농수산물 수출컨소시엄(일본)	농수산물	일본	(주)해피식품 일한월드센터	6
6	대구 경북 농자재 수출컨소시엄	소형가전, 농기구	터키	Design Kims	10
7	전북 생활소비재 수출컨소시엄	식품 위주 생활소비재	베트남	TLM Trading Co., Ltd	8
8	경남 기계식품 중국 수출컨소시엄	기계, 식품	중국	(주)제이앤아이글로벌	11
9	경기 가구 수출컨소시엄	가구	중동 (UAE, 사우디, 카타르 등)	(주)한국컴파스	23
10	경기 북부 섬유 수출컨소시엄	섬유	중국	(주)엠피알브레인	20
11	울산 자동차 수출컨소시엄	자동차 관련	유럽(독일), 캐나다	I-deals	7
12	부산 기계부품 수출컨소시엄	기능형 기계부품	이란, 베트남	글로벌마케팅 네트워크(주)	10
계	12건	-	-	-	144

## | 고성장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 |

고성장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은 최근 4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지방은 15% 이상) 고용 또는 매출 증가율이 높은 고성장기업을 발굴하여 자율 수출마케팅 지원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618개 업체에 총 296억 원을 지원하였다.

동 사업은 글로벌역량진단을 통해 핵심기술력 및 마케팅 역량에 대해 진단평가하고 직접 작성한 수출마케팅계획서를 발표·평가하여 기업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이 활용하기 희망하는 지정 프로그램 및 해외전시회, 마케팅인력 신규채용 등의 자율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등 기업의 자율적 수출마케팅을 지원한다.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된 618개의 우수한 고성장기업에 290억 원의 지원을 통해 2016년 국가수출증가율 -5.9% 대비 고성장기업 수출증가율은 4.6%로 약 10.5%p를 초과하는 수출실적 달성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여 내수기업 136개사 중 56개사, 41%의 첫 수출 성공을 도왔다. 또한 고용분야에서는 281명의 수출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등 국가고용창출에도 기여하였다.

고성장기업은 대내외적으로 관련 사업들과의 연계지원에 힘쓰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정책융자인 고성장기업전용자금 264억 원을 80개사에 융지지원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중소기업청 고성장기업 전용 R&D 78개사, 152억 원 연계지원, 한국무역협회와 퇴직무역인력 채용연계 홍보, 다국적 인증기관인 UL KOREA와의 MOU 체결 및 해외인증취득교육 및 연계홍보 지원, 상해 K-STYLE FAIR 2016 공동전시회 참가지원 등 고성장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지원을 노력하였다.

### 고성장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 실적

(단위 : 백만 원, %, 개사)

구분	실적	비고
수출증가율	4.6%	'16년 국가평균 : -5.9%
수출액	1,184백만 불	618개사
첫 수출 성공	41%	내수기업 136개사 중 56개사
수출전문인력	281명 신규채용	38억 원 지원
연계지원	80개사, 264억 원	정책융자
	78개사, 152억 원	고성장기업 전용 R&D
	21개사, 84백만 원	중국 상해 공동전시회
	퇴직무역인력 채용연계	한국무역협회
	해외인증취득 연계홍보	UL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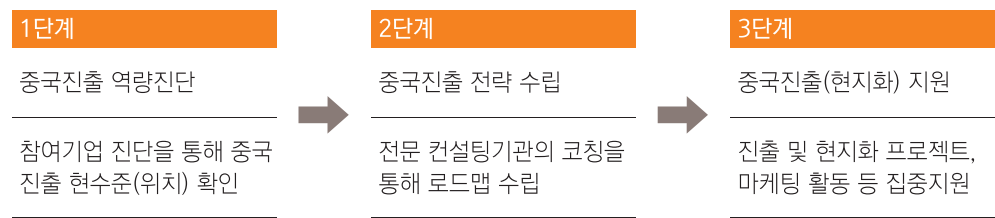
### 고성장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

구분	년도
	2016년
지정 프로그램	해외진출전략 컨설팅 외국어 흡소핑 및 기업홍보 동영상 제작 글로벌브랜드 개발
	온라인 마케팅 외국어 온라인 쇼핑몰 및 홈페이지 제작 해외상품홍보 외국어 포장, 제품디자인 개발 및 브로셔, 카탈로그 제작
자율 프로그램	해외전시회 참가, 마케팅인력 신규채용, 수출교육 등 자율
필수	글로벌 역량진단, 수출마케팅계획서 발표·평가

## | 차이나하이웨이 프로그램 |

차이나하이웨이 프로그램은 중국진출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중국 진출 역량진단 및 로드맵 수립, 현지화 지원을 통해 중국 시장으로의 빠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국진출 역량진단 → 중국진출 로드맵 수립 → 마케팅·현지화」를 단계별 지원



2014년 7월 중국 내수시장 진출방안(2013년 9월)의 후속조치로 시작하여 2016년 231개사 95억 원을 지원하였다.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업체당 최대 7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지 진출을 위한 기업 BI, CI 개발 및 카탈로그 제작 등 디자인 개발 29개사, 세무·회계 및 조인트벤처 투자 등 현지 진출 법률자문 20개사 등 지원을 통해 12월 기준, 803백만 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였다.

참여기업의 평균 수출증가율이 6.3%로 국가평균수출증가율 -5.9%보다 12.2%p 높은 성과 달성으로 국가수출에 견인하였다.

## | 수출연계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

수출연계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은 '해외에서 팔릴 수출용 신제품 및 신기술'의 개발을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무역) 교육·해외시장조사·홍보물·디자인 개발·온라인 마케팅·전시회 참가 지원" 등 개발 제품의 수출에 필요한 마케팅 통합 지원을 통해 R&D 성공제품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 45개 업체에 총 18억 원을 지원하였다.

수출연계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R&D를 완료하고 우수한 결과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집중지원과 기존 수출마케팅 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R&D 성공 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및 수출연계율을 제고할 수 있다.

업체당 최대 40백만 원 한도에서 지원 프로그램 수행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70% 한도를 지원한다. 선정 기업이 분야별 희망 프로그램을 선택한 후 수행사와 서비스 및 단가를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프로그램 완료 후 검수를 받은 뒤 보조금을 수령하는 후 정산 시스템이다.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된 222개의 선정기업에 1,366백만 원 지원을 통해 2016년 국가수출증가율 -5.9% 대비 참여기업의 수출증가율은 26.9%로 약 32.8%p를 초과하는 수출실적 달성을 지원하였다.

### 수출연계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지원실적

(단위 : 백만 원, 개사)

주요 지원프로그램 구분	지원 기업 수	지원금액
디자인	86	419
제품 디자인	7	154
마케팅	54	285
전시회	64	421
자율마케팅	8	37
시장개척단	3	49
총계	222	1,365

\* 사업 종료 : 2017년 4월

## | GMD(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사업 |

GMD(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사업은 민간 수출전문기업(Global Market Developer)이 수출성장 잠재력이 높고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수출 초보·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순 과정(수출 준비 → 해외영업 → 수출)을 밀착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 수출성과를 제고하고 있다.

지역·품목·유통채널 등 특성별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회사를 GMD로 선발하여 심층적이고 차별화된 통합지원을 통해 특정지역·품목에 편중된 중소·중견 수출구조를 신형시장, 소비재, 온라인 등으로 다변화하고, 특히, 아프리카 등 특수지역 시장, 국제기구 조달시장, 현지 독립몰 등 그간 우리 기업의 진출이 부진했던 분야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2016년에는 신형시장, 전자상거래, 해외 B2G 등 전문분야별 기존회사 GMD 및 창업 GMD 46개사를 선정하여 GMD를 통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수출 초보·유망 중소기업 280개사 매칭 완료 후 활발히 시장개척 활동을 진행 중이다.

###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사업 지원실적

(단위 : 개)

구분	신형시장		전자상거래		B2G		계
	기존	창업	기존	창업	기존	창업	
GMD수	16	16	7	1	4	2	46
매칭기업수	110	64	61	5	30	10	280

## | 중소기업 남북협력지원사업 |

중소기업 남북협력지원사업은 남북경제협력 확대 및 북한진출 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목표로 대북진출 상담 및 사업타당성 검토에서부터 자금, 컨설팅, 연수, 정보제공 등 기업의 대북사업 추진 단계별 원스탑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16년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입주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우수상품 특별판매전을 총 19회 실시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유통센터 및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 대북진출기업 자금지원실적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5년까지		2016년		누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북한내륙지역	24	10,870	-	-	24	10,870	
개성 공단	협동화	24	10,285	-	-	24	10,285
	개별	86	61,557	89	81,176	175	142,733
	소계	110	71,842	89	81,176	199	153,018
합계	134	82,712	89	81,176	223	163,888	

## | FTA 대응 역량강화사업 |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FTA·수출컨설팅, FTA 교육, 글로벌마케팅, 연구, 홍보 등을 실시하였다. 관세사, 수출전문가 등 전문 컨설턴트를 현장에 파견하는 FTA·수출컨설팅으로 원산지 확인 및 증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였다.

또한, 소외지역과 공단밀집지역에서 지역별 FTA 교육을 개최하여 정부의 FTA 활용지원시책, FTA 원산지 실무, 외환관리 등 관련 정보제공으로 중소기업 CEO 및 실무자의 FTA 인식 개선을 추진하였다. 특히, 현장방문 1:1 교육을 통해 자금사정이 열악하고 시간 부족으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별 맞춤형 교육의 시행으로 92%의 만족도를 달성했다. 한편, MEGA(다자 간) FTA 대응교육을 신규로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신시장 진출 및 신규협정 FTA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 FTA 대응 역량강화사업 주요 실적 |

구분	실적	주요 내용
FTA·수출 컨설팅	1,036개사	FTA 원산지확인, 증명 및 수출애로 해소
FTA 교육	639회, 9,052명	원산지실무, 통관, 지적재산권, 중소기업 등 분야별로 FTA에 대한 정보 제공
글로벌마케팅	15개사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과 브랜드 파워가 강한 FTA 체결국 현지기업 간의 공동브랜드 사업화(Co-Branding)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 (공동브랜드사업 9개사, 기술사업화 사업 6개사)

## |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은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해외 진출 프로젝트에 대해 해외 우수 민간 컨설팅·마케팅 회사를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여 컨설팅 등 현지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민간네트워크는 수출과 해외투자 등을 위한 시장조사, 협력파트너 발굴, 계약체결을 위한 법률자문, 현지법인 설립 등을 지원하며, 해외유통망을 확보하고 국제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과 해외민간네트워크를 연결시키고 프로젝트 소요비용의 50% 내지 70%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진출지역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0개월 기준으로 북미, 유럽 등 지역은 기업 당 2,000만 원, 중국, 동서남아 등 기타지역은 기업당 1,7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였다.

2016년에는 51개국에 139개 해외민간네트워크를 지정하였으며, 전략프로그램 수행사(93개사)를 선정하여 기술제휴(수출) 지원, 전략적 품목 및 시장 마케팅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2016년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통해 지원한 중소기업은 총 225개사로 수출실적 261백만 불(2016년 12월 말 기준)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2017년부터는 '해외지사화사업'으로 통합되어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OKTA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원실적

(단위 : 개사, 백만 불)

구분	민간네트워크	지원기업수	수출실적	투자유치	현지법인설립	기술협력계약체결
2014년	143	285	449	0.33	19	14
2015년*	146	276	279	14.01	17	10

\* 2016년도 지원실적은 프로그램 종료 이후(2017년 6월 말)에 성과 집계

## | 수출인큐베이터사업 |

수출인큐베이터사업은 해외 현지에서 지사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설립 초기의 위험을 경감해 주고 조기정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스스로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별기업이 임차하기 어려운 12~20㎡ 규모의 독립된 사무공간을 저렴한 비용(1년 차 기준 임차료의 80% 정부지원)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현지정착 지원, 바이어 및 시장정보 제공 등 마케팅 지원, 컨설팅 및 상담, 현지네트워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2016년 말 기준, 수출인큐베이터는 미국(시카고, LA, 워싱턴, 뉴욕), 독일(프랑크푸르트), 중국(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청두, 시안, 충칭), 일본(도쿄),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브라질(상파울루), 싱가포르(싱가포르), 러시아(모스크바), UAE(두바이), 인도(뉴델리), 멕시코(멕시코시티), 카자흐스탄(알마티), 칠레(산티아고) 등 주요 해외교역 중심지 국가에 설치·운영(13개국 22개소) 중에 있다.

### 수출인큐베이터(BI) 설치지역 및 입주규모

(단위 : ㎡)

지역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베트남	브라질	싱가포르	러시아	UAE	인도	멕시코	카자흐스탄	칠레	계
	시카고	LA	워싱턴	뉴욕	프랑크푸르트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청두	시안	충칭	도쿄	호치민	하노이	상파울루	싱가포르	모스크바	두바이	뉴델리	멕시코시티	알마티	
입주규모	18	23	12	23	15	21	14	26	10	7	7	15	12	15	10	10	11	16	9	7	7	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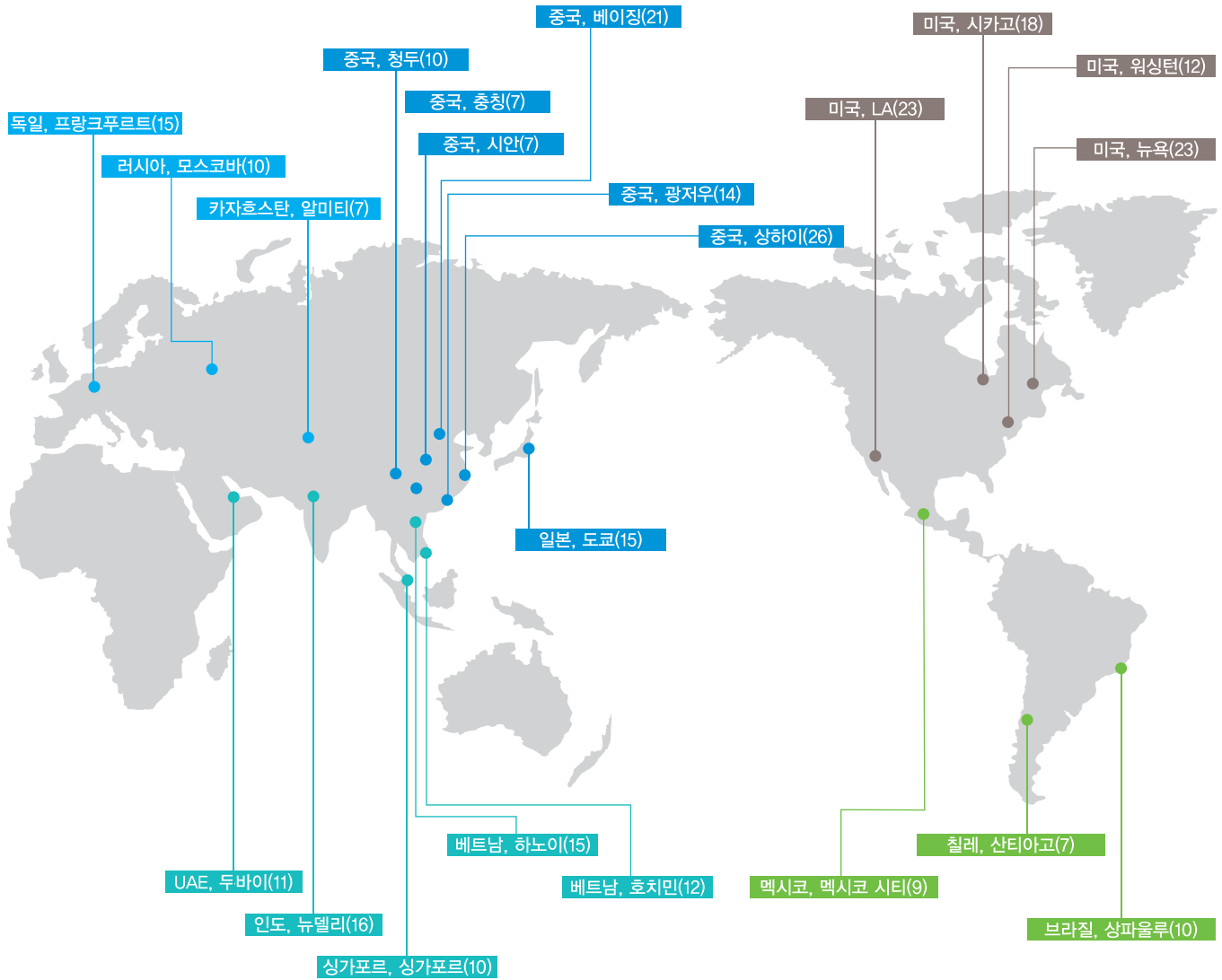
2016년 입주업체의 총 수출실적은 약 6억 1,436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입주업체 성과분석 결과, 입주전년도 대비 입주년도 평균 매출액은 12.84% 증가, 총수출액은 13.74% 증가하는 등 전체적인 입주기업의 경영성과가 제고되었다. 또한,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에 대한 만족도 역시 92.8%에 이르는 등 입주기업에 대한 수출인큐베이터 지원성과 및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수출인큐베이터(BI) 입주 전/후 기업 성과비교

구분	입주전년도(a)	입주년도(b)	증가율(%) ((b-a)/a*100)
총 매출액 (억 원)	168.81	190.49	12.84%
수출상담 건수	125.28	142.89	14.06%
수출계약 건수	69.74	77.42	11.01%
수출대상 국가수	14.00	14.62	4.43%
신규 바이어 발굴 건수	7.61	9.36	23.00%

\* 출처 :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한국국제경영학회, 2016. 12)

설치 · 운영규모: 13개국 22개소 298개 시설



## | 해외산업 협력지원사업 |

### 가. 해외산업 협력기반 구축

#### ① 사업개요

중진공은 국내·외 정부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에 유용한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해외 43개국 75개 협력 네트워크와 중국 칭다오·미국 뉴저지 중소기업지원센터,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코리아데스크를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 ② 사업추진현황

2016년 한 해 동안 해외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MOU 체결(9개국 11개 기관), 산업협력관 교환(15개국 22명), 해외시장 진출환경 세미나(10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산업협력사절단, 국제회의 및 외빈 방한 지원 등 해외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협력사업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활동을 하였다.

#### 해외산업협력기반 조성실적

구분	실적	비고
MOU 체결	11회	태국, 라오스, 몽골 등 9개국 11개 기관
산업협력관 교환	22명	몽골, 이스라엘 등 15개국 22명 교환
해외진출 세미나 및 설명회	10회	산업기술포럼, 몽골 진출 세미나 등 10회
산업협력사절단 교환	10회	이스라엘, 러시아, 몽골 등 10회

특히, VIP 경제사절단 및 성과확산협의회 참가를 통해 외국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였다.

또한, 현지 사절단 매칭상담회 시 참가기업 대상 정책자금 상담부스를 운영하여 수출계약 상담기업 대상 관련자금 안내를 통해 현장에서 기업애로를 해결해주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중국 칭다오·미국 뉴저지 중소기업지원센터 및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코리아데스크에서는 지역별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과제를 추진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였다.

#### VIP 경제사절단 및 성과확산협의회

산업부 주재회의로 경제단체(대한상의 등), 유관기관(중진공, KOTRA 등)으로 구성(16년 9월 중진공 가입)

외국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해외 정부 및 유관기관 3개국(몽골, 러시아, 라오스) 4개 기관과 MOU 체결

해외거점 특성화과제 추진실적

구분	특성화 과제	운영 성과
중국 칭다오 중소기업지원센터	칭다오 한국우수중소기업상품전시관 입점기업 상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람회 30개사 46명 참가</li> <li>• 상담 210건 진행 및 수출 103천 불 달성 등 지원</li> </ul>
미국 뉴저지 중소기업지원센터	산업기술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 산업혁명 관련 최신산업 정보 제공</li> <li>• 인도 B사(연매출 8.5억\$) 등 우수기업 초청 상담</li> </ul>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	인니커피조합 생산성향상 지원 (O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커피 관련 기업의 인니시장 진출 지원</li> <li>• 인니커피조합의 부가가치 활동 지원</li> </ul>
말레이시아 코리아데스크	친환경 산업협력 사절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28건 상담, 18,173천 불 상담 및 313천 불 계약 예상</li> <li>• 말레이시아 녹색전시회인 IGEM 2016 참관</li> </ul>

나.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 운영

① 사업개요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는 제12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2005) 공동선언을 통해 APEC 21개 회원국 중소기업 혁신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전담창구이다. 2006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내 설립·운영되다가 2009년에 중진공으로 이관되었다.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 운영은 역내 중소기업 분야에서 한국의 국격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교류의 차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업의 차별성이 있는 만큼 거시적으로 한국이 APEC 역내 중소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강화해 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② 사업추진현황

2016년은 'APEC 역내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목표로 역내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및 역내시장 진출지원을 도모하였다.

특히, APEC 프로젝트 기금을 2년 연속 확보하였으며, 2015년에 확보한 기금(\$104,000)을 활용하여 APEC 중소기업 국제화지표 개발을 통해 역내 중소기업의 국제화 수준을 파악하고 균형발전 및 교역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국제화지표 포럼을 개최하여 역내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대한 정보교류도 추진하였다.

또한, 2016년에 확보한 기금(\$95,980)을 활용, APEC 여성 중소기업인 포럼 개최를 통해 역내 여성 기업인의 성공사례 및 노하우 공유, 네트워킹 등 여성 기업인의 역량 강화를 주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컨설팅을 통해 APEC 역내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기술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비즈니스 매칭상담회 개최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역내 진출확대 및 강화 지원을 하였다. 또한,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및 실무그룹 회의 참가를 통해 역내 회원국과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정보 공유 등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 APEC 중소기업 혁신센터 운영실적

구분	세부사업명	실적
역내 혁신주도	혁신컨설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국 21개사</li> <li>• 컨설팅 결과 활용률 95%</li> </ul>
역내 중소기업 간 협력	APEC 비즈니스 매칭행사 (3월, 태국·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중소기업 11개사 지원</li> <li>• 상담 142건, 예상 계약 3,571천 불</li> </ul>
정책교류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및 실무그룹회의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관(1회), 실무그룹(2회)</li> </ul>

# 인력양성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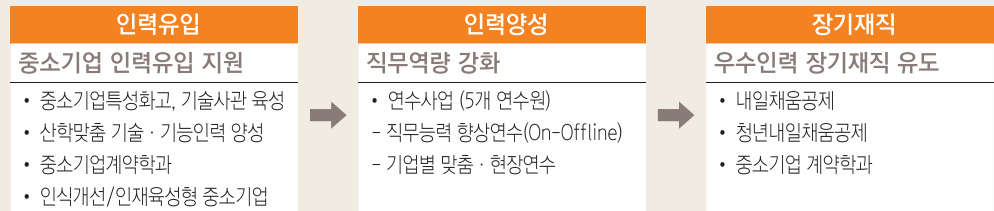
인력양성은 우수인재의 양성·유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식개선」, 「인력양성」, 「연수」, 「성과보상기금」 총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사업 목적 및 내용

구분	인식개선		인력양성	연수	성과보상기금
	중소기업 인식개선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사업목적	구직자 인식개선	우수 중소기업 발굴·지정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중기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우수 인력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
주요내용	대국민홍보, 교육 및 체험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홍보	맞춤형 인력 양성·공급	단기 집합연수 이러닝연수	성과보상기금 형태의 공제기금 운영

1982년 중소기업연수원(경기도 안산) 개원을 통해 연수사업으로 시작한 인력양성사업은 2014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인력양성사업을 이관받고, 같은 시기 성과보상기금의 출범을 통해 “인력유입”부터 “장기재직”에 이르는 “중소기업 인력양성 플랫폼” 구축을 완성하였다.

### 중소기업 인력양성 플랫폼



특히, 5개 연수원을 거점으로 한 광역별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전국 31개 지역본·지부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 접점에서 맞춤형 인력 지원과 현장 인력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사업) 간 연계지원을 통해 정책사업 간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 중소기업연수원 현황

구분	중소기업연수원	호남연수원	대구경북연수원	부산경남연수원	글로벌리더십연수원
개원	1982	2001	2003	2004	2014
위치	경기 안산시	광주광역시	경북 경산시	경남 창원시	강원 태백시



정책(사업) 연계지원 연수현황

과정명	창업아카데미	재창업기업 CEO 역량강화	스마트공장 핵심인력양성	수출아카데미
정책(사업)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스마트공장 확산·보급	수출기업육성
관련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 (민·관합동추진단)	중소기업청
교육인원	2,120명	450명	323명	1,902명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인식개선분야는 총 26,136명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229개의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홍보 및 취업 알선을 지원하였다.

특히, 「사장님이美쳤어요」(KBS 1, 7부작) 방영을 통해 12명의 성과공유 우수 중소기업 CEO가 출연, 5.4%(TNMS 제공)의 평균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높은 국민 관심을 유도하였으며, 스타트업 취업인식개선 공모전(14개팀 시상)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인력양성분야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기술사관육성 및 산학맞춤 기술·기능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여 총 21,785명(사업기간 : 2016.3~2017.2)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였으며 지역산업과 연계한 20개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 맞춤형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연수분야는 5개 연수원을 통해 2016년 48,282명, 누적인원 138만 명의 연수인원 달성을 하였으며, 「스마트공장 민·관 합동 추진단」의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사업과 연계한 「스마트공장 핵심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 총 323명의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등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고, 지방소재 중소기업 및 소기업의 수출교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수출아카데미」를 운영하여 1,902명의 수출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과 인재중심 경영 및 성과공유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CEO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 중소기업 CEO 3,45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성과보상기금은 2016년 말 현재 19,205명의 공제 가입실적을 달성하였으며, 노동부 「청년 취업인턴제」를 연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 청년층의 취업부터 장기재직까지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자체·공기업 등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 확대로 278명의 추가 가입자를 모집하였으며, 내일채움공제 가입실적을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에 반영하여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공제사업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6년간 기술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2016년 6기 졸업생 300명을 포함한 총 1,515명의 청년 CEO를 배출하였고 매출액 7,210억 원, 지적재산권 등록 2,681건, 일자리창출 4,999 명의 지원성과를 거두었다.

연수사업 실적



성과보상공제 실적



지원성과



## 세부사업 추진실적 | 중소기업 인식개선 |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은 대국민을 대상으로 우수 중소기업을 홍보하고 학생에게 교육 및 중소기업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역할과 가능성을 바로 알리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여 취업의사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 우수인력 유입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표적인 우수 중소기업 홍보사업은 KBS 방송프로그램 <나눔경영소 사장님이美쳤어요> 제작 지원(총 7회, 평균시청율 4.6%)이다. 사업주-근로자 간 성과공유를 실천하는 우수 중소기업인 12명을 <미래를 이끌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선정 후 방송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중소기업 성과공유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였다.

현장인식개선사업은 중·고·대학생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총 16,136명에게 중소기업 체험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였다. 자유학기제의 전면실시에 따라 284개교 13,670명의 중학생에게 중소기업 체험 및 이해교육을 실시하였고, 특성화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연극특강 및 토크콘서트를 78개교 10,744명 대상으로 개최하였다.

특히 올해는 학생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성화고 학부모(892명)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이해교육을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다문화가정 학생(30명) 및 농·산·어촌(5,388명) 등 사회소외계층 대상으로도 중소기업 탐방을 통한 체험적 교육기회를 최초로 제공하였다.

특성화고등학교 대상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과서 「중소기업과 나의 꿈」을 전국 16개 특성화고에 3,788권을 보급하였으며 교수법 강좌 개발을 통해 221명의 교사들이 온라인으로 수료하도록 하여 교재활용도를 제고하였다.

설문 조사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비율이 감소(47% → 86%)하였고, 중소기업 취업희망 비율은 상승(45% → 76%)하는 효과를 가져왔다(중·고등학생 합산).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실적

(단위 : 개, 명)

구분	대상	프로그램	참여결과	
			학교	학생
현장으로 찾아가는 인식개선	중학생	기업탐방, 특강	284	13,670
	특성화고	연극특강	65	3,900
	학생	토크콘서트	13	6,844
	특성화고	중소기업 이해특강	10	801
	학부모	토크콘서트	13	91
	특성화고 교사	연수	175	221
	대학생	중소기업체험캠프	216	609
합계			776	26,136
우수 기업 홍보	대국민	KBS「사장님이 美쳤어요」	7편, 시청률 5.4%	
공모전	대국민	KTV「내일을 잡아라」	8개 기업 출연	
	대국민	스타트업취업인식개선	14개팀 시상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은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직원에게 보상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중소기업 스스로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고질적 인력난을 완화할 목적으로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기업에 대해 ① 서면평가, ② 현장평가, ③ 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지정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479개사가 지정되었다. 지정기업에 대해서는 기획보도와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기업 홍보뿐 아니라 취업포털과의 연계를 통한 채용지원, 지속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정책연계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기업 현황

(2014~2016년 누적 기준)

지역별 현황

경기	서울	경남	경북	충남	부산	대전	전북	충북
122	62	54	36	33	28	26	19	18
광주	인천	대구	전남	강원	울산	제주	세종	계
18	16	16	13	8	6	2	2	479

종업원수별 현황

10인 미만	10~30인 미만	30~50인 미만	5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계
17	105	124	137	84	12	479

매출액 규모별 현황

10억 미만	10~50억 미만	50~100억 미만	100~300억 미만	300~500억 미만	500억 이상	계
8	97	109	182	37	46	479

## | 연수사업 |

1982년 중소기업연수원(본원 안산) 개원을 시작으로 호남연수원(2001년, 광주), 대구경북연수원(2003년, 경산), 부산경남연수원(2004년, 창원), 글로벌리더십연수원(2014년, 태백) 등 5개의 지방연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난 35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산업기술교육을 선도하여 총 138만여 명 대상에게 연수를 실시하였다.

2016년에는 48,282명의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중소기업연수원(안산) 36,666명, 지방연수원(호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글로벌리더십)은 11,616명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장비를 활용한 실험·실습 중심의 기술연수를 강화하고 교육니즈가 높은 뿌리기술(주조, 금형, 열처리 등) 분야 교육을 확대 운영하였다. 또한, 현장의 기술애로 해결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을 결합한 기술에듀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기술과정을 확대하여 인력부족으로 연수 참여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교육접근성을 제고하였다.

### 연수사업 실적

(단위 : 명, %)

과정	'15년 실적	'16년		
		계획(A)	실적(B)	달성률(B/A)
• 직무역량향상연수	19,240	18,270	18,895	103.4
• 정책연수	13,215	8,350	10,309	123.5
• 중기지원정책	2,180	5,000	5,131	102.6
• 수출교육	708	650	533	82.0
• 취업연계연수	4,907	2,700	3,165	117.2
• 기타(산학협력 등)	5,420	-	1,480	-
• 원격연수	24,284	12,000	19,078	159.0
• 맞춤연수*	550개사	380개사	461개사	121.3
• 문제해결	208개사	155개사	245개사	158.1
• 현장맞춤형	230개사	140개사	80개사	57.1
• 조직활성화	112개사	85개사	136개사	160.0
소 계	550개사	380개사	461개사	121.3
	56,739	38,620	48,282	125.0

\* 2014년부터 맞춤연수는 업체수로 실적 산정(2016년 맞춤연수실적 461개사 7,12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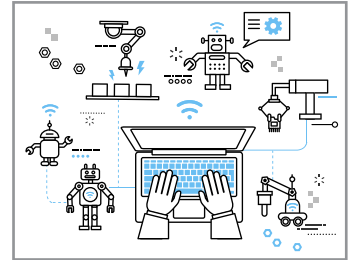
4차 산업혁명 대비 공공연수원으로서 선도기관 역할 수행을 위하여 2016년도부터 스마트공장 전문가양성 과정을 신규로 개설하였으며, 2017년도 44개 과정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이다. 보유시설의 적합성, 운영과정의 완성도 및 강사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4차 산업혁명 선도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대내외적으로도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아울러, 2017년 하반기에는 Learning Factory 완공 예정으로 현장 적용도가 높은 실습 중심의 과정이 운영될 예정이다.

우수 연수고객 방문마케팅 및 연수과정 미스터리 쇼핑 실시를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과정별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과정 운영에 반영하였고, 연수종료 후에는 고객의 목소리(VOC)를 상시 수집하여 연수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중소기업연수원(안산) 및 지방연수원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HRD지원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연수사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서비스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직무역량향상연수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학습자의 지식회득 정도와 현장실무 적용도를 파악하기 위한 “학습성취도 조사”를 실시하고 과정내용 개선에 활용하는 등 더욱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공기관 최초 4차 산업혁명 의무교육기관 선정('16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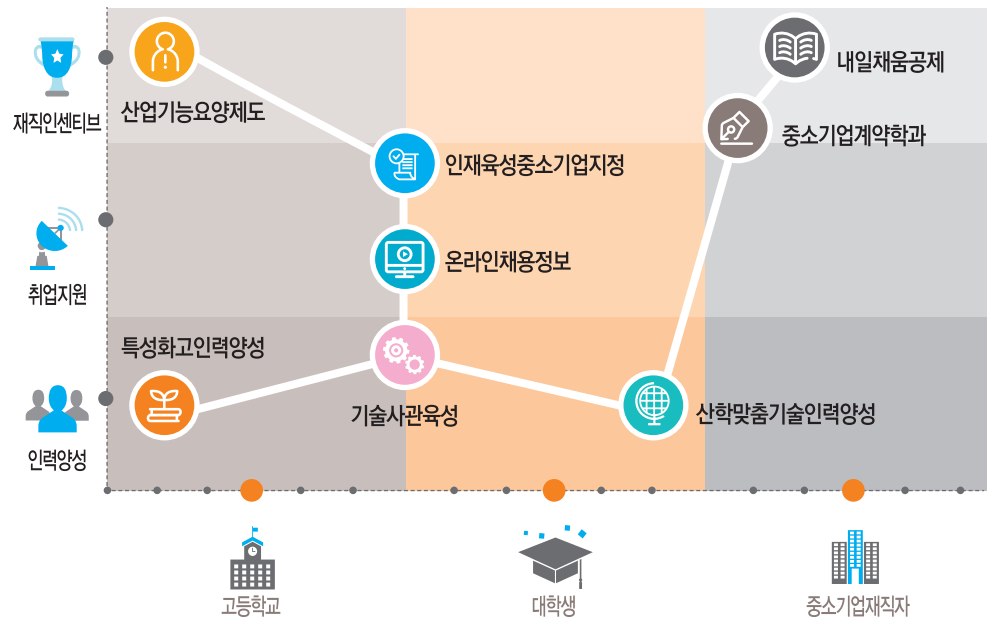
스마트공장추진단업무협약('16년 11월)



## | 인력양성사업 |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은 특성화고·대학과 중소기업 간 산학 연계를 통해 맞춤형 우수 현장 기능·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선취업·후진학을 통한 일학습 병행 문화를 확산하고, 중소기업형 우수인재의 유입, 양성,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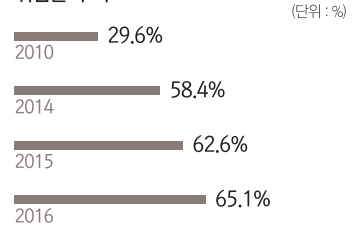
인력양성사업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산학맞춤 기술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 계약학과사업 등 총 4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침에 따라 2015년 4월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이관된 사업이다.

중진공은 인력지원사업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채용부터 장기재직 유도, 기업 역량강화까지 일관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양성 선순환 체계구축」의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인력지원사업 기정원 이관 전·후 주요 개선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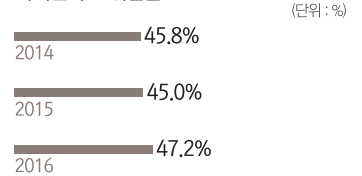
구분	이관 전	이관 후
사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관부서 중심의 업무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진공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한 능동적 사업 추진</li> <li>- 지역거점 활용한 사업 연계 및 확대</li> </ul> </li> </ul>
사업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개 인력양성사업 개별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별 방식, 매뉴얼 등 제각각</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효율성을 위한 통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양성사업 발전방안 연구 추진</li> <li>- 체계적인 사업 DB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li> </ul> </li> </ul>

중진공 지원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률 추이



특히, 2016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은 181개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대상자 중 29,530 명이 취업하여 65.1%의 역대 최고 취업률을 달성하였다.

비지원학교 취업률



인력양성사업별 주요 추진실적

구분	추진 실적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181개 특성화고(137,614명)에 중소기업 맞춤형인재 양성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프로젝트 수업, 진로지도 및 연수에 소요되는 사업비 평균 1.7억 내외 지원</li> </ul>
기술사관 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개 사업단(2,267명)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평균 3.6억 내외 지원</li> </ul>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4개 대학(776명)에 중소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공급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평균 2억 내외 지원</li> </ul>
중소기업 계약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1개 대학, 60개 계약학과 및 재학생에게 학과 운영비 및 등록금 지원(1,575명, 8,191백만 원 지원) 및 관리</li> <li>지역특화산업학과(재용조건형, 석사과정) 17개 학과 신설, 화장품 등 지역산업 연계 재교육형 3개 학과 확충</li> </ul>

## | 청년창업사관학교 |

정부의 기술창업 촉진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 기조에 부응하기 위하여, 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11년 경기 안산에 처음 개교하여 현재 전국 5개 지역에서 확대 운영 중이다.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는 창업실행 단계의 입교자에게 창업 준비 공간을 제공하고, 창업 코칭 및 교육 실시, 제품설계부터 시제품 제작 등에 창업 순 과정에 소요되는 기술 및 장비 지원을 통해 창업자의 원활한 사업화를 유도하고 있다.



중진공은 각국의 주요 창업 지원 기관을 방문하여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고객 및 정부의 요구를 반영한 창업 지원 정책을 개발하였다. 최근 급진적인 기술 발달 및 글로벌 금융 환경의 변화는 신속한 창업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를 낳아 높아왔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사업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지원 효율성 및 창업 성과 제고를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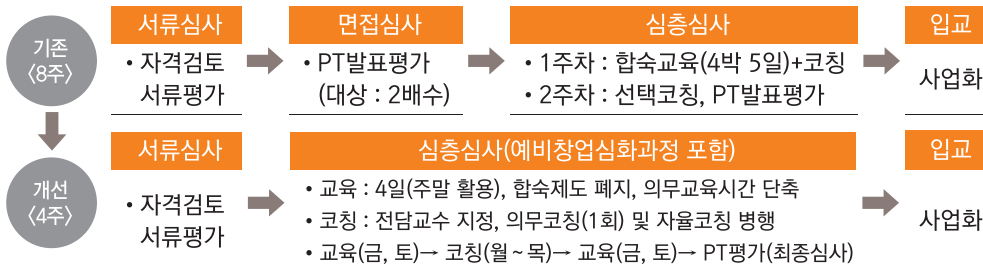
먼저, 중진공은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입교자 선발 절차 개선과 창업 성과검증 체제 도입 및 사업비 지원방식 변경을 통한 고객의 편의성 제고 및 창업 활동 촉진을 추진하였다.

기존 입교자 선발 과정에는 창업자의 창업 의지 및 성실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1주일간의 장기 합숙 심사 제도가 운영되어 왔다. 이는 기업이 정신의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유의미한 평가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숙평가의 부담감으로 인해 우수 기술력 및 사업성을 보유한 기 창업자 또는 직장인 등 예비 창업자들의 사업 참여를 어렵게 한다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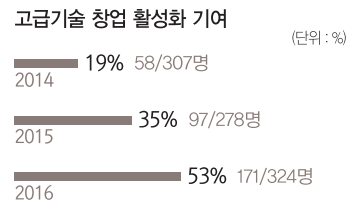
따라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기존 1주일간의 합숙심사 단계를 대체할 예비창업심화과정을 도입하여, 평가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주말을 활용한 교육 및 코칭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 수행자의 부담감을 최소화하여, 사업 참여에 대한 장벽을 낮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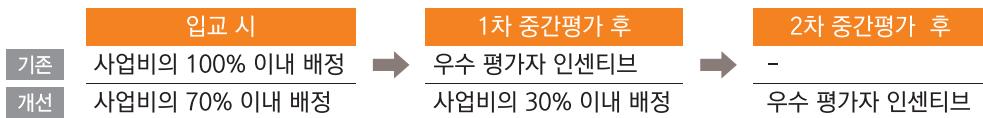
입교생 선발절차 개선 내용



그리고 입교자의 창업 활동 결과를 사업비 배정과 연계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여 창업활동 촉진 및 성과창출을 유도하고, 우수 기술 창업자 선발비중 확대를 통한 고급기술 창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창업 성과 검증 체제 도입 및 사업비 지원방식 변경 내용



또한 창업 준비 단계의 (예비) 창업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 주관기관에서 지정한 전문 인력이 고부가가치 기술 보유자 및 우수 인재를 직접 추천을 통해 잠재력 있는 (예비) 창업자를 보다 능동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스카우터 제도를 도입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6년간 기술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2016년 6기 졸업생 300명을 포함한 총 1,515명의 청년 CEO 배출하고, 매출액 7,210억 원, 지적재산권 등록 2,681건, 일자리창출 4,999 명의 지원성과를 거두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자의 주요 경영성과(2015년 말 기준)

(기준 : 2016년 11월 말)

구분	1기	2기	3기	4기	5기	합계
졸업 CEO(명)	212	213	254	284	252	1,215
매출액*(억 원)	1,919	2,324	1,191	1,471	305	7,210
일자리창출*(명)	1,171	1,318	1,291	895	324	4,999
지재권(건)	271	546	655	835	374	2,681
투자 금액(억 원)	83	230	57	279	20	670
투자 기업(개사)	13	25	15	41	15	109
수출(달러)	10,163,559	3,396,395	2,668,726	10,839,419	733,224	27,801,323

\* 고용인원은 '16년말 기준 고용인원 합계, 매출액은 '16년 상반기까지 누적 매출액

##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은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및 잦은 이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4년도 8월에 출범하였다. 동 기금은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사업(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한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5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근로자가 만기까지 재직 시 공동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 가입대상: 중소기업 + 핵심인력
  - 중소기업은 中企인력지원특별법상 지원업종 영위업체
  - 핵심인력은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가입기간: 5년(최초 가입 시), 3~5년(재가입 시)
- 가입금액: 5년간 최소 2,000만 원 이상  
『핵심인력 : 중소기업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 공제금리: 연 복리이자

2016년에는 내일채움공제와 노동부의 '청년취업인턴제'를 연계한 신규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여 청년취업에서 장기재직까지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다르게 2년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00만 원 총 600만 원을 적립하고 정부가 60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만기 재직 시 근로자에게 1,200만 원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 가입대상: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중소기업은 中企인력지원특별법상 지원업종 영위업체
  - 근로자는 청년취업인턴제를 수료하여 정규직 전환된 자
- 가입기간: 2년
- 가입금액: 청년 300만 원, 기업 300만 원, 정부 600만 원  
『핵심인력 : 중소기업 : 정부 = 1:1:2』의 비율로 납부
- 공제금리: 연 복리이자

출범 후 2016년 말까지 성과보상공제(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8,058개사 19,205명 (누적기준)이 가입하여 당초 목표인 18,500명 대비 103.8% 달성하였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가입실적

누적 가입목표(A)	가입실적			달성율(B/A)
	기업수	인원수(B)	기금조성	
18,500명	8,058개	19,205명	935억 원	103.8%

한편, 지자체, 공기업들과의 연계지원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동반성장 분야에서도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2016년도에 강원도 100명, 국남동발전 25명, 한국서부발전 114명, 한국가스공사 33명, 한국광물자원공사 6명이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완료하였다.

대외협업 강화를 통한 공기업 협력사 내일채움공제 가입지원

(단위 : 개사, 명, 백만 원)

구분	협력사 업체수	지원 인원수	지원액	비고
한국남동발전	8	25	150	
한국서부발전	23	114	684	4개사 178명 1,068백만 원
한국가스공사	10	33	198	5년간 1인당 600만 원
한국광물자원공사	3	6	36	지원(月 10만 원 × 60개월)

또한, 민간 대기업으로의 동반성장 모델 확산을 위해 협력사의 내일채움공제 가입 지원 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가점(1점)을 반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CJ제일제당 등과 업무협력을 추진하는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프로그램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공제 대출 활성화 및 가족참여 힐링캠프 등 다양한 교육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제가입자의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성과보상기금 가입자 19,000명 달성의 성공적 사업정착을 기반으로 향후 공제 가입창구를 기존 중진공 현장 접점조직(지역 본·지부)에서 추가로 금융기관, 협회 등 민간 전문기관으로 다변화하여 고객의 접근성 개선 및 이용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참여대상을 다변화하고 확대하여 청년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중진공 - 강원도 업무협약식('16.7.9)



평가에 가점(1점)을 반영

연간 지원한 인력 수 및 지원 금액에 따라 점수 부여  
(2016.9.27, 제42차 동반성장위원회)

가입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개정  
(2016.5.29)

가족참여 힐링캠프



# 기술 · 컨설팅

## 사업개요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경영·기술 전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로 기업 경쟁력 강화, 컨설팅 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진공은 자체 컨설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컨설팅 지원을 위해 전문가 풀 확보와 과제 선정 및 수행계획 평가, 완료점검 등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기정원과 정부 컨설팅 지원사업의 사업운영 단일화로 지원체계를 효율화하였다.

지원사업은 기술·경영, 특화형, 원스톱 창업지원 분야로 구분되며, 정부지원금은 30~90% 비율로 최대 30백만 원까지 과제 규모에 따라 지원된다. 사전진단평가와 수행계획 평가를 거쳐 대상기업을 최종 선정하고 있다.

2016년에는 995개 기업에 중소기업 컨설팅 115억 원, 4개 컨설팅 대학원(한성대, 금오공대, 한양대, 대전대)을 지정 운영하여 16.75억 원을 지원하였다.

R&D 성공과제 사업화 지원사업은 기술개발 후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한 사업화 기획 및 제품화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6년에는 공모를 통한 접수 이외에 정부부처·공공기관의 R&D 사업 성공판정 이후 사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을 추천받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사업화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은 고부가가치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동 사업은 경륜·경정법 및 산업발전법에 의거,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어, 지원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다.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소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주관이 되어 수행하는 기술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하며, 동 산업 전문가의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 규모 및 지원 내용

2016년 예산	3,325백만 원
지원기간	자전거산업 분야 : 2년 이내 해양레저장비산업 분야 : 3년 이내
지원한도	자전거산업 분야 : 연 2억 원 이내(과제당 총 3억 원 이내) 해양레저장비산업 분야 : 연 3억 원 이내(과제당 총 8억 원 이내)
지원비율	총 개발사업비의 75% 이내(일괄협약 후 연차별 지급)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은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지정원 사업 통합(2015.4)에 따른 신청창구 단일화 이후 2016년 사업구조 개선과 접수방식 및 선정 절차 개선으로 지원체계 효율화 개편을 추진하였다.

##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 기술컨설팅지원사업 주요 개선

구분	기존(2015)	변경(2016)	개선
접수방식	• 반기별	• 월별	• 절차개선으로 선정기간 단축(47일, 전년대비 57일 ↓)
선정방식	• 대면평가	• 서면평가	
사업분류	• 5개 사업	• 2개 사업	• 사업 단순화로 수요자 편의 제고
		- 경영·기술컨설팅 - 원스톱창업지원컨설팅	

컨설팅지원사업은 기업의 문제해결을 통한 장·단기 성과창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컨설팅 추진 전·후 및 컨설팅 비수진기업과의 비교에서 모두 높은 경영성과를 창출하였다.

### 기술컨설팅지원사업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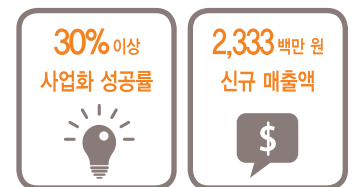
(단위 : 백만 원, %)

구분	단기성과				구분	장기성과			
	공정 불량률	제조 원가율	생산납기 준수율	인당 생산성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비용 감소율	노동생산성 증가율
컨설팅 전	2.37	71.87	92.03	131.43	비수진기업	1.72	5.18	-0.47	-12.83
컨설팅 후	1.19	68.34	95.97	141.85	수진기업	12.00	23.24	1.86	5.88
증감	Δ1.18	Δ3.53	3.94	10.42	증감	10.28	18.06	2.33	18.71

\* 자료출처 :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성과분석 보고서(2016.6, ㈜리서치랩)

R&D 성공과제 사업화 지원사업은 광역별 기술경영전문센터와 협업을 통해 기술사업화 진단 및 사업화 기획을 추진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온라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 R&D 성공과제 사업화 성과



### R&D 성공과제 사업화 업무 개선

구분	기술사업화 진단		사업화 기획	
	수행	평가	수행	평가
기존(2015년)	본사	엑셀 활용	본사	파워포인트 활용
변경(2016년)	기술경영전문센터	온라인 시스템	기술경영전문센터	온라인 시스템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은 지원과제에 대한 정량적인 사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특허 등록 및 출원건수' 및 '시제품출시 건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지표를 관리하고 있으며, 특허등록 및 출원 5.0건, 시제품 출시 7건의 실적을 달성하여, 10억 원당 특허 건수가 3.7건으로 국가 R&D 사업 평균 1.54건\* 대비 140%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 자료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2015년 자료

## |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은 중소기업 특성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 및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진공은 2015년 기정원과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을 일원화하여 컨설팅 업무, 인력, 예산 통합을 완료하고 2016년에는 컨설팅 지원과제들의 통합·개편 및 월별신청 방식 전환으로 선정기간 단축과 기업 편의성을 제고하는 정책성과를 거두었다.

2016년에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 육성”으로 사업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운영 품질향상을 위한 운영조직 변경(지역본·지부→광역별 기술·경영전문센터(3개))과 실무중심 역량교육(3회) 및 워크숍(1회)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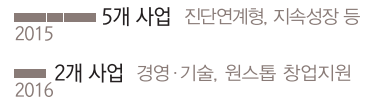
2016년 사업추진을 통해 총 995개 기업을 선정하여 11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체계적 경영관리, 불량률 감소, 생산성 향상 등 높은 컨설팅 지원성과를 창출하였다.

정책목적성 강화를 위해 최근 산업트렌드인 ‘新서비스분야’, ‘미래성장산업’ 영위 기업을 대상으로 특화컨설팅(20건)을 추진하고, 개성공단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컨설팅 지원(17개사)을 통해 경영환경 정상화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컨설팅 대학원을 통해 컨설팅 전문인력으로 석사 82명, 박사 41명을 양성하고 컨설팅 교재 및 방법론 24건을 개발하여 컨설팅 기반강화에 의한 컨설팅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였다.

## 세부사업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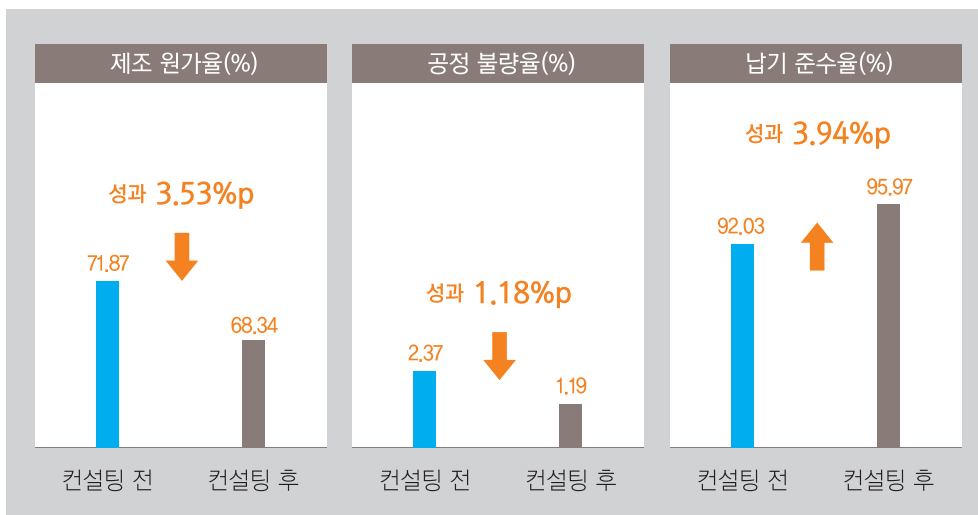
컨설팅 지원과제 통합·개편



컨설팅 지원과제 선정기간 단축



###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성과



##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은 고부가가치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에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소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주관이 되어 수행하는 기술개발 과제이며, 소요 비용은 정부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산업 전문가의 기술사업성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특히, 기술개발 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도 지원할 수 있게 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기술개발 성공에 기여하고 있다.

2016년도에는 총 25개 업체가 사업신청을 하였으며, 이중 5개 업체를 신규로 선정하여 5: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계속과제 포함, 총 3,025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선정결과

(단위 : 백만 원, 개)

구분	신규과제		계속과제	지원금액
	신청건수	선정건수	선정건수	
자전거	7	2	2	450
해양레저	18	3	8	2,575
총계	25	5	10	3,025

지원과제에 대한 정량적인 사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특허 등록 및 출원건수' 및 '시제품출시 건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지표를 관리하고 있으며 특허등록 및 출원 5.0건, 시제품 출시 7건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또한, 지원기업 간 협업 및 사업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기술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위해 기술개발 위주의 지원에서 사업화 단계까지 지원 분야를 확대하고자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2017년부터 지원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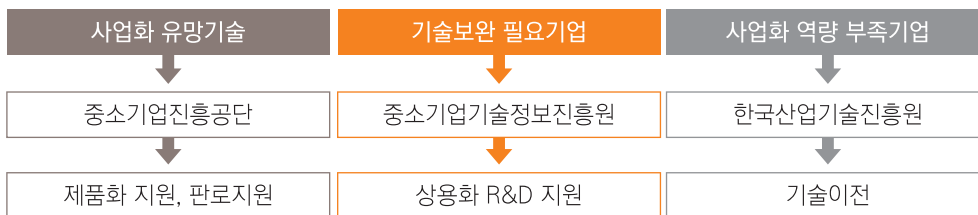
## | R&D 성공과제 사업화 지원사업 |

R&D 성공과제 사업화 지원사업은 기술개발 완료 후 사업화되지 못한 기술에 대해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한 사업화 기획, 제품화 지원 등 맞춤형 사업화 지원으로 정부 R&D 투자효율 개선 및 중소기업의 신규 매출을 창출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R&D 성공판정 기술 및 특허등록 기술 중 사업화 추진(매출발생, 양산화)이 안 된 기술보유 중소기업이며, 최종 선정기업에게는 시제품 제작, 인증, 마케팅, 홍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2016년에는 KOSBIR\* 시행기관을 통하여 정부부처 R&D 성공판정 중소기업을 추천받아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대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화 추진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 KOSBIR(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 R&D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기관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권장하는 제도

### 추진 유형별 지원체계



기술사업화진단446개사, 사업화기획80개사, 제품화지원48개사에 총2,290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제품화 지원 후 신규매출 1,322백만 원을 창출하였다. 또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상용화 R&D 31개사 5,607백만 원을 연계지원하였다.

### 주요성과

(단위 : 백만 원, %)

구분	사업화 성공률*	신규매출발생액	신규매출/투입예산**	
2015년	지원 종료 후 1개월	25	303	15.8
	지원 종료 후 6개월	60	2,781	144.6
	지원 종료 후 12개월	70	6,829	355.1
2016년	지원 종료 후 1개월	27	1,322	43.1
	지원 종료 후 3개월	31.3	2,333	76

\* 사업화 성공률 = 사업화 성공 업체 수 ÷ 사업화 지원 업체 수(2015년 목표 20%, 2016년 목표 25%)

\*\* 투입예산 : 2015년 1,923백만 원, 2016년 3,070백만 원

## | 중소기업 재기컨설팅 지원사업 |

### 가.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사업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사업은 외부환경 변화 등으로 위기에 봉착한 기업에게 전문가 심층진단을 통해 진로를 제시하는 사업이다.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정리 시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퇴출 유도로 시장 내 명맥만 유지하는 '좀비기업'의 양산을 막고,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조기진입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2016년에 7억 원 예산으로 총 265개 기업에 대해 진로제시컨설팅을 지원하였다. 265개 지원기업 중 22개사에 "회생컨설팅 지원" 처방을 하여 그중 11개 기업이 회생컨설팅을 신청했으며, 30개사에는 사업정리 안내, 나머지 213개사에는 "구조개선" 판정으로 수출마케팅, 워크아웃, 자금 등 지원정책을 연계하였다.

#### 진로제시컨설팅 처방 현황

(단위 : 개사)

구분	회생컨설팅 지원	사업정리	구조개선 등	합계
지원기업	22	30	213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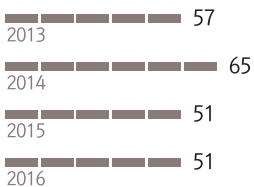
### 나.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

2016년 51개사를 지원결정했으며, 법원 회생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법원과의 협업을 통해 회생인가율을 제고하고 있다.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은 법원 회생절차의 이행이 필요하나 회생절차 비용조달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맞춤형으로 회생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원 조사위원 경험을 보유한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등 전문컨설턴트를 통해 법원 회생개시신청서 작성, 조사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 등 회생절차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 2013~2016년 회생컨설팅 지원실적

(단위 : 개사)



합계 224 개사

#### 2013~2016년 회생컨설팅 지원실적

(단위 : 개사)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지원기업	57	65	51	51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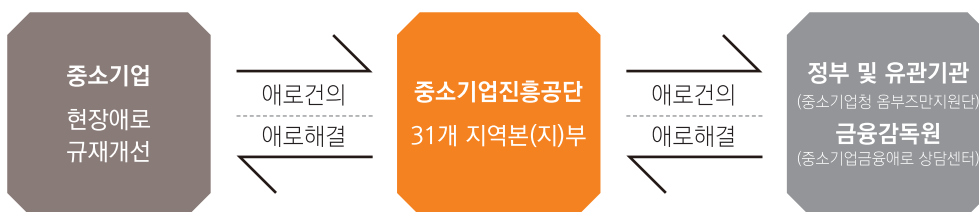
2016년 회생컨설팅 완료기업 44개사 중 33개사의 경우 회생인가결정이 완료되어, 75%의 인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비교가능한 지표인 최근 5년간 법원의 회생인가율 통계수치(34%)를 41%p 상회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역량이 우수한 컨설턴트를 선정·관리하고 있으며, 신청부터 인가 시까지 컨설팅 전 과정에 걸쳐 수요자 맞춤형으로 컨설팅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 | 정책중개 |

2011년부터 중진공은 기관의 강점인 현장성을 살려, 지역본지부에서 발굴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정부에 직접 건의하는 '정책중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발굴된 애로사항들을 정책과제로 검토한 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별하여 매월 중소기업 ombudsman 등 정부에 정책개선 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는 중소기업(Small business), ombudsman(Ombudsman), 중진공(SBC)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규제애로 합동 간담회인 S.O.S Talk를 운영하여 2016년까지 총 13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유관기관과의 협업 활동을 통해 중진공은 "정부정책과 중소기업 현장의 중개자"로서 역할을 더욱 확대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간담회와 지역본지부에서 수집한 애로사항 337건을 정부에 직접 건의하여 산업분석을 통한 국가차원의 창업 MAP 작성 등 67건의 규제를 정부시책에 개선사항으로 반영하는 데 기여했다.

### 정책중개 업무절차



또한 중소기업의 불합리한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부터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를 운영하였으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금융애로상담센터 이용확대와 성과확산을 위해 지역 본지부를 37회 방문하였다. 그 결과 2016년에는 전년보다 17% 증가한 49건의 신규대출, 만기연장 등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해소하였다.

주요 정책개선 사례

번호	건의명	건의내용
1	산업분석을 통한 국가차원의 창업MAP 작성 추진	(현황)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신사업 진출 시 관련 산업동향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 (개선) 중소기업 국내·외 정책자료 및 동향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 업데이트, 사이트 간 연동, 상권분석 정보 Map 제공 예정
2	중국 수출품에 대한 위생허가 기준 완화	(현황) 네일 제품 수출 시 색깔별로 위생허가를 받으며 발생하는 심사비용·기간을 피하기 위해 소량으로만 수출하는 등 판로확대에 애로점 존재 (개선) 한·중 화장품 분야 국장급회의('16.6)에 안건으로 제시하는 등 당국자 회의 시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
3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기업의 예산사용 자율권 확대	(현황) 개별 프로그램별 지원 금액 한정으로 기업 상황·수요에 맞는 탄력적 사업비 운용이 어려움 (개선) 총사업비 한도만 설정하여 기업의 수요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
4	소상공인특화자금 신청 및 접수요건 완화	(현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출 신청과정에서 신청접수 행위를 대표자 본인만 가능하도록 제한 (개선) 법인 대표자의 대리인도 소상공인특화자금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범위를 확대
5	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간소화	(현황) 사업비 집행관련 제출서류가 과다, 중복되어 사업진행기업의 애로 가중 (개선) 인건비 집행 증빙서류를 재정비하여 전체 주관기관(32개)을 대상으로 '시정' 조치 공문 발송

| 정보제공(간행물 발간) |

『기업나라』 표지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영·기술 트렌드, 우수 성공사례, 중소기업 지원시책 등의 정보를 담은 월간 『기업나라』를 1979년부터 발간하고 있다.

매월 1일 발간되는 『기업나라』는 중소기업 경영자 및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회비 납부방식의 정기구독 회원제로 운영된다. 연간 회원에게는 정가보다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무료로 배송하고, 주요기사를 엄선해 이메일 뉴스레터를 발송하여 정기구독 회원에 대한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시중 서점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판매를 진행했으며, 인터넷 웹진(nara.sbc.or.kr)을 통해 주요기사를 제공하는 등 정보 접근성을 제고했다.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정보제공 확산을 위해 포털사이트 네이버 '포스트'에 『기업나라』 콘텐츠를 서비스함으로써 모바일 환경에서도 주요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 대중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기여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한국ABC협회에 부수인증매체로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발행부수에 대한 검증을 받아 정기간행물로서의 대외신뢰성을 높였다.



CEO 경영을 말하다



작가



블랙홀 제국을 향한 스마트팩 첫걸음

블랙홀 제국을 향한 첫걸음... 스마트팩의 시작은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에 있다. 이는 생산 공정의 자동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통해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고, 고객 맞춤형 제품을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스마트팩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문화아지트도

주요기사를 최신 산업동향 및 이슈와 관련 중소기업의 사례를 심층 취재하는 <특집>, <기획>과 함께 4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People & Company>에서는 중소기업 CEO의 경영철학과 우수 제품의 탄생 과정을 소개하기 위해 현장에 직접 찾아가 취재하고, <Global>에서는 현지 리포터를 통해 미국, 독일, 일본 등의 해외 경제이슈 및 기술동향을 전달했다. 또한 <Trend & Solution>을 통해 경영·기술 관련 트렌드를 분석하고 중소기업 시책정보를 제공했으며 <Culture & Relax>의 문화 관련 기사로 교양정보 등 다양한 내용의 콘텐츠를 실었다.

보다 다양한 시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했다. 중소기업 관련 규제개선 사례를 소개하는 신규 코너를 개설(중소기업 옴부즈만)하였으며, 여성 발명이 세상을 바꾼다(여성발명협회), 사회적기업을 말하다(사회적기업진흥원) 등 특집 및 기획 코너에 대한 자료수집과 취재업체 섭외를 협업하여 기사의 전문성을 높였다.

매월 「독자의 소리」 코너에서 관심 있게 본 기사내용과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독자 모니터링단 설문을 통해 『기업나라』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와 선호도, 신뢰도, 건의사항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는 5점 척도 기준 4.04점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특히 '성공사례'와 '시책정보', '특집·기획' 관련 기사에 대한 독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 2

고객만족도 제고 및  
경영효율성 강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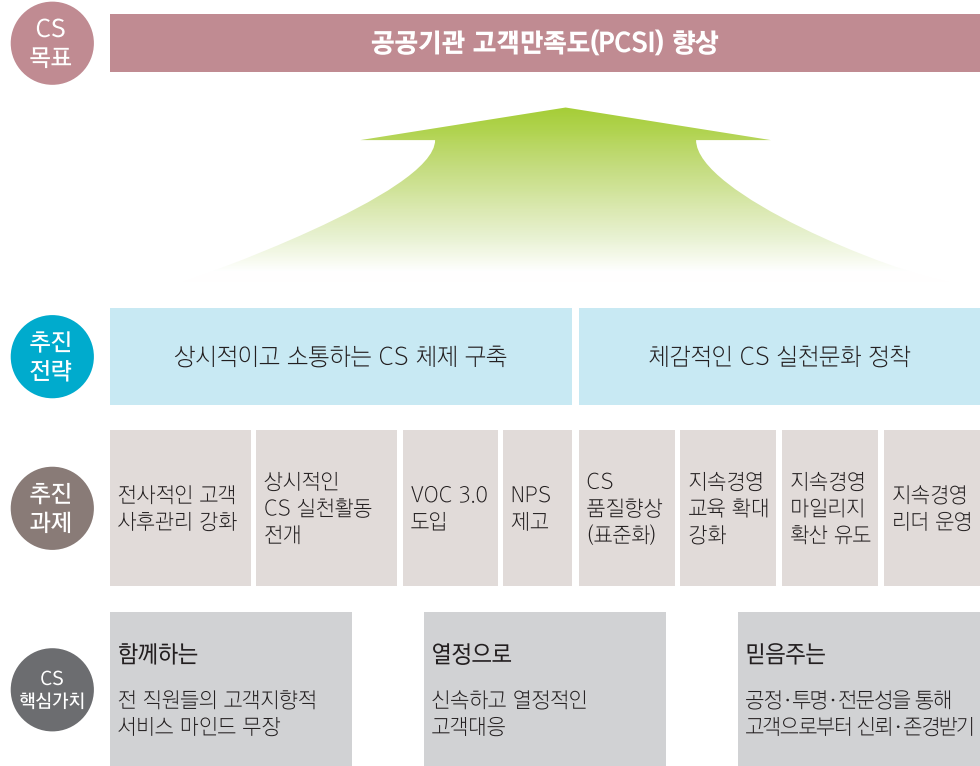


88	현장 중심의 고객서비스 향상
91	조직 경영효율성 강화

# 현장 중심의 고객서비스 향상

## 고객 중심의 CS 경영 추진을 통한 고객만족 제고

2016년에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시적이고 소통하는 CS 체제 구축', '체감적인 CS 실천문화 정착'이라는 2대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전략 추진을 위한 8개 실천 과제를 통해 전사적인 CS 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였다.



우선 “상시적이고 소통하는 CS 체제 구축”을 위하여 전사적인 고객 S&R(Sence & Response) 체제를 강화하였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기존 표본조사에서 전수조사로 확대하고 고객 VOC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였다. 또한, “소통(Communication)”을 주제로 현장부서에 12개의 실천과제를 Top-Down 방식으로 매월 부여하여 상시적인 CS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VOC 3.0 도입을 통해 고객의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등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더불어, “체감적인 CS 실천문화 정착”을 위하여 CS 상담 매뉴얼, 전화 응대 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서비스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고객과의 “공감”과 “소통”을 주제로 직급별 맞춤형 CS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협력직원에 대한 CS 교육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고객 응대력을 강화하였다. 더불어 부서 차원의 Boom-up 활동을 신설하는 등 지속경영마일리지 개편하고, 부서별 지속경영리더를 운영하는 등 직원들의 적극적인 CS 활동을 유도하였다.

이와 같은 2대 추진전략과 8개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PCSI 점수가 84.1점(2015)에서 88.7점(2016)으로 상승하였으며, 등급기준으로는 B등급에서 A등급으로 1등급 상향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구분	2015년	2016년
PCSI	84.1	88.7
NPS	90.5	94.8

PCSI(Public-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Index)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NPS(Net Promoter Score) : 순 추천고객 지수 (고객 로열티를 측정하는 방법)



「국민과 고객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윤리·청렴문화 확립」을 2016년 중진공 윤리경영 목표로 정하고, 청탁금지법 환경에 대한 적응력 강화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윤리경영시스템 개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윤리경영 고객체감도 제고'의 3대 추진 전략과 6개 실천과제를 선정·추진하였다.

## 윤리경영시스템 개선과 내재화 프로그램을 통한 청렴문화 조성



먼저, 기관 윤리경영 종합·조정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기존 “윤리경영위원회”와 “Clean SBC추진단”을 「청렴·윤리경영위원회」로 통합 운영하여 윤리경영과 청렴활동의 효율적 연계와 실행력을 제고하였으며 비위행위 처벌규정 강화와 행동강령 개정 등 청탁금지법 환경에 대응하는 조직과 제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하여 14년부터 윤리경영의 날(6월 2일)사진을 지정하여 임직원 청렴결의, 기관장 윤리메시지 전달, 전문가 초청 특강, 청렴퀴즈대회, 청렴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였으며, 직원 윤리교육을 의무화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 외 2016년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대한 직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38개 부서 순회의 청탁금지법 현장 밀착 교육을 추가 실시하고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내부 게시판을 운영하여 직원 이해도를 높였으며, 청렴슬로건 공모전과 선포식, 홍보 등 청렴캠페인(7~9월)을 실시하여 기관의 반부패·청렴문화를 조직 내부는 물론 고객까지 체감 시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윤리 취약요소 개선 및 실천 활동의 고객체감 효과가 높은 테마를 직군별로 분류하여 부서별 Top-down 과제를 시행하였으며, 임직원 윤리의식 진단 및 기관의 윤리경영 실천 활동에 대한 고객 체감도를 조사하여 현장부서에 전달·개선해 고객신뢰와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윤리경영의 날 (6.2, 청렴연극)



청렴캠페인 선포식(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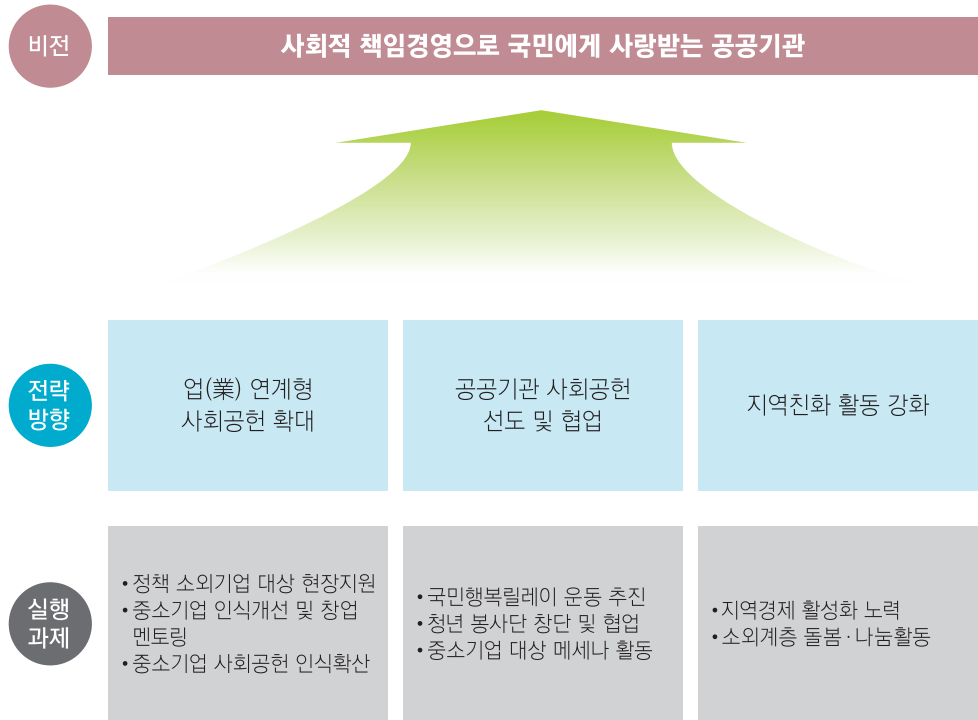


윤리경영 추진 성과

구분	2016년
윤리경영실천지수	91.9
조직윤리지수	88.9
권익위 내부청렴도	2등급

## 기관 특성을 반영한 사회공헌 수행을 통한 사회적 책임 완수

중진공은 사회공헌 추진 비전을 '사회적 책임경영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공기관'으로 정하고 이를 추진하고자 노력하였다.



지역친화 사회공헌 활동



중진공은 사회공헌 활동의 전략방향을 업(業) 연계형 사회공헌 확대, 공공기관 사회공헌 선도 및 협업, 지역친화 활동 강화의 3대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정책 소외기업 대상 '찾아가는 현장 서포터' 지원으로 정책지원의 양극화를 해소하였으며, 초등학생부터 특성화고 재학생, 이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까지 대상별 맞춤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식개선과 창업 활성화를 이끌어내었다.

두 번째,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사회공헌 활동을 선도하였다. 국민대통합위원회 공동 '국민행복 릴레이운동' 추진으로 나눔과 봉사의 문화를 선도하였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20~30대 임직원으로 구성된 '청년봉사단'을 창단하여 기관 간 특성을 반영한 협업을 진행하였다.

중진공 장학금 지원



세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외계층 나눔 등 지역친화 활동을 강화하였다. 합천군 30개사에 마을기업 글로벌화 지원 수출멘토링을 실시하였고, 특성화고 재학생 대상 중진공 장학금 지원, 진로상담 등 맞춤 멘토링으로 나눔 활동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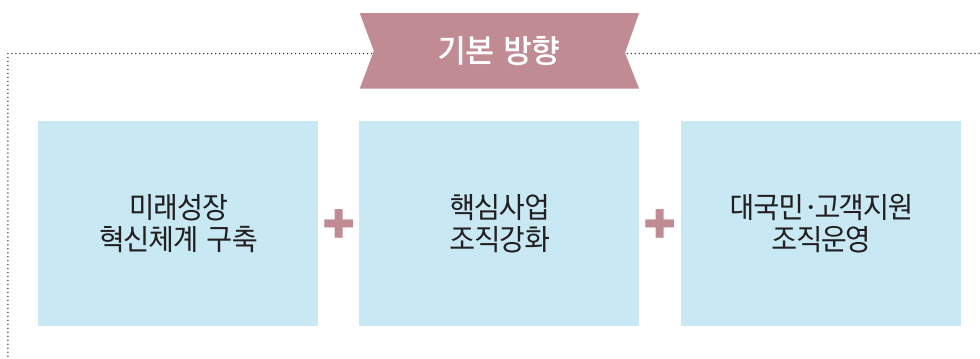
기관 특성을 반영한 재능기부 활동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을 기반으로 중진공은 기재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 사회공헌부문 우수사례(사례명 : '중진공感 사회공헌')로 선정되는 등 중진공 직원, 수혜자,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조직 경영효율성 강화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신규 시행, 재도전 중소기업의 성공적 재기지원을 위한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 핵심사업의 인력 소요 필요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18명의 인력을 증원하였다.

또한, 산업혁명 4.0시대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혁신조직 필요성과 고객 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해 ① 미래성장 혁신체계 구축, ② 핵심사업 조직강화, ③ 대국민·고객지원 조직운영을 기본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조직개편을 실시하였다.

## 중소기업의 지속성장과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 증원 및 조직체계 개편



추진방향	조직개편 내용
미래성장 혁신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혁신업무를 통합하고 혁신총괄·조사연구 기능강화를 위해 부이사장 직속 ‘혁신전략실’ 신설</li> <li>• 부서·개인평가 확대에 따른 체계적 성과평가 시행을 위해 성과관리실 확대·개편</li> </ul>
핵심사업 조직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수출 간 협업·연계지원을 규정에 반영하고 부서별 구체적 업무분장을 통해 사업 간 연계 강화</li> <li>• 중소기업의 인력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인력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양성 조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개발처 → 기업인력지원처로 확대·개편</li> <li>* 청년내일채움공제 추진을 위한 청년공제팀 신설(성과보상사업처)</li> <li>* 15개 지역본부에 기업인력애로센터 설치</li> </ul> </li> <li>• 안정적 재도전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별 센터 확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 7개(서울, 부산 등) → 2017년 : 9개(기존 외 서울 동남부, 경기)</li> </ul> </li> </ul>
대국민·고객지원 조직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서비스 및 사회공헌활동 강화를 위해 내외부 고객관리기능을 통합하고 사회공헌 편제를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내외 고객관리기능을 고객행복실로 통합·운영</li> </ul> </li> <li>• 권역별 경영지원처에 평가·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정책자금 운영체계 개편을 통해 사업집행의 효율성 제고 추진</li> </ul>

## 정부3.0 효과적 추진기반 마련

정부3.0이란? :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국민의 삶을 편하게 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입니다.

정부3.0 과제 최우수상



정부는 2012년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도입된 정부3.0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정부 3.0 생활화를 추진하기 위해 서비스 고도화와 대국민 체감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중진공은 정부3.0 중장기(2015~2017) 실행계획을 수행하고 신규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전년보다 12개 증가한 총 4개 분야(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변화관리) 33개 과제를 발굴하였다. 특히 2016년에는 정부3.0 생활화를 전사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고객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체계적인 연간계획 수립, 정부3.0 이행노력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다방면의 노력을 시행하였다.

각 서비스 과제별로 매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중진공의 정부3.0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여 장애원인과 저항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초청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중진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SBC3.0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다.

그 결과 중진공 대표 맞춤형 서비스인 '위기기업 및 재도전 기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사례로 행자부 주관 공공기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정책자금 온라인 사전상담예약 도입을 통한 고객편의 증대' 사례는 중기청 주관 정부3.0 및 비정상의 정상화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7년도에는 중진공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부3.0 실행과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상시 이행점검과 과제별 통·폐합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고객의 불편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고, 민간분야의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방 확대 및 창업 분위기 확대에 필수적인 정책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통해 중진공은 수요자 중심으로 기관운영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전환하여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 선도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부의 적극적인 청년 고용정책에 발맞추어 채용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간접고용 인력까지 포함한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이전 지역 자치단체 및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합동채용설명회, 취업특강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우수한 지역인재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다(8명). 그것 뿐 아니라 계약직 6명의 정규직(2명), 무기계약직(4명) 전환을 통해 고용안정성에 기여하였으며, 기관 핵심직무와 연계한 NCS 채용(직무 14개 세분화)을 통해 52명을 신규 채용하였다.

회계사, 기술사, 석·박사 등 전문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전략실행력을 강화하였으며, 개성공단 입주 피해기업지원, 산업혁신 4.0 전담반 등 임시조직을 적절히 활용하여 긴급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였다. 기관의 인력현황을 인구통계학적으로 분석하여, 청년인력의 지속적인 유입(청년 94.4% 채용)과 여성(38.9%) 및 비수도권 인재(46.6%) 영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한편 고졸직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교육 및 대학학위 취득지원 등 2-Track 지원을 실시하여 고졸사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였다.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출퇴근시간에 맞춘 어린이집 운영, PC-OFF제 본격도입(준수율 94%), 육아휴직 복직자 희망부서 우선발령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양성평등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사공동 여성인재 고충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였다. 또한 여성인재의 지속근무와 우수역량 발휘를 위해 육아휴직 및 단시간근로를 적극 장려하였다.

능력 있는 직원이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무평정제도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특히, 개인업적평가를 신규 도입하였다. 관련하여 평정결과를 상시 공개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여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통해 내부직원의 인사고충을 해소하고 원하는 근무지 사전 조사를 통해 전보 인사에 대한 직원만족도 상승을 이끌어 내었다. 또한, 전문직위제와 개방형계약직제를 도입하여 기관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

경남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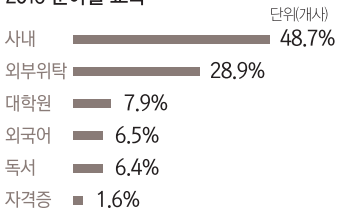
## 전문인재 중점 육성

### 연간 교육실적

구분	2015년(a)	2016년(b)	증감(b-a)
총 교육시간	106,117	106,498	381

(단위: 시간)

### 2016 분야별 교육



중진공은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겸비한 중소기업의 Best Partner를 육성하는 것을 HRD 목표로 설정하고 성과창출을 위한 전문인재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

교육이 현장에서 성과와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원 및 조직의 니즈를 분석하여 연간 HRD 중점과제를 도출하여 운영하였으며, 자가진단 및 상사진단 2단계 역량진단시스템을 통하여 개인별 역량을 분석하고 역량 기반의 자기주도형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총 교육시간은 381시간 증가하였다.

분야별로는 사내직무교육 과정 확대, 금융연수원 등 전문기관 위탁교육 확대, 신입직원 직무교육 강화 등으로 직무역량 비중을 확대하고, 공통역량 교육은 필수과정 위주로 운영하였다. 이에 직무교육 비중은 전년도 66.2%에서 73.1%로 크게 증가하였다.

기금건전성 제고를 위해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후관리 분야에서는 업무경력별로 구분하여 필수, 추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역량에 맞는 단계별 학습 및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에 지역본·지부 사후관리 교육 인원이 증가하고 현업적용도 또한 상승하는 성과가 있었다.

구분	2년 미만	2년~5년 미만	5년 이상
필요역량	대출 관련 용어 및 약정서 등 기본 이해	담보 및 사후관리에 대한 심화	대출 사후관리 법령, 사례 등 심층 사례연구

부서장들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시스템, 금융정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였고, 실무자들의 기업심사 및 진단능력 제고를 위한 기업진단평가 아카데미를 초급-중급 맞춤형으로 운영하였다. 지역본·지부 심사·진단업무 담당자 중 초급 단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필수이수 과정을 지정하여 진단문화 확산 기반을 마련하였다.

기업진단아카데미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한편 이수 후 성취도 평가 실시에 따라 기업진단평가사 자격증을 부여함으로써 사내자격증 확대 및 진단역량 제고를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63명의 직원이 기업진단평가사 자격증을 신규 취득하였다.

중소기업의 수출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수출마케팅 담당자 역량 향상 교육을 운영하였다.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한 수출마케팅 과정을 신설하였으며, 온라인 수출활성화를 위한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부서장을 대상으로 수출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전 직급의 수출분야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다.

기업심사, 사후관리, 수출마케팅 등 주요사업 분야의 직무교육과정 활성화 노력을 통해 현업 적용도가 4.23점에서 4.25점으로 향상되었으며, 효율적인 예산운영 노력을 통해 교육인원 또한 11.3% 증가하였다.

신입직원 교육은 2015년에 이어 NCS 기반으로 운영하였으며 2016년에는 멘토링 활동을 강화하여 고객 관점에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OJT를 실시하였다. 이에 방문상담 절차 개선 등 44개의 사업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전사적으로 공유하였다.

전 부서장들의 리더십 및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필수과정으로 금융 및 수출마케팅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2회 운영하였으며, 여성 관리자 육성을 위해 여성 직원을 장기교육 파견시키는 한편, 기존 오프라인 리더십 교육 외에 블렌디드 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여성 관리자들의 교육 참여가 증가하였다.

신입직원 교육 사진



##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직·개인성과관리 및 보상체계 운영

중장기 경영목표·전략과제 달성과 정부정책 구현을 위해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성과지표의 전략 연계성을 확보하였다. 특히, 전략연계 KRI(조기경보지표) 21개를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한 결과, 달성률이 전년대비 1.4%p 상승하였다.

성과지표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원이 참여하는 1차 검증(SMART 기준), 2차 심층검토 및 계량지표 난이도 평가를 실시하였고 내·외부 검토를 통하여 핵심성과 업무 중심으로 KPI를 2015년 171개에서 2016년 129개로 간소화하였다.

성과평가 시에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성과담당자를 기획관리직군 평가위원으로 초청하고, 상호 평가단을 도입하는 등 평가단을 다양화하였으며,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평가단 전문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직원 의견수렴을 반영한 성과평가 방법의 개선을 통해 평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투명한 성과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비계량 평가보고서를 공개하고 비계량 이의신청 제도를 신규 도입하였다. 또한 부서경영평가위원회 심의 전후 결과 및 회의록을 공개하였고 평가결과 조정 시 그 사유를 공지하였다.

부서평가결과 조정방식도 등급조정에서 표준편차 가감점 부여방식으로, 기관장과 부서경영평가 위원회의 조정권한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축소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직원 설문조사 결과 조정권한 축소에 대한 긍정응답이 80.07%로 나타났다.

### 성과관리체계 운영 성과

(단위 : %, 점)

구분	KRI 달성율	평가 공정성	평가 투명성
15년	95.1	신규	신규
16년	96.5	(목표) 3.6, (실적) 3.71	(목표) 3.6, (실적) 3.82

기존 2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성과평가를 6급 이상 전 직원으로 확대하였고, TF 운영, 외부용역 실시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제도를 설계하였다. 개인성과평가제도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직원토론회, 현장설명회, 부서별/팀별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경영목표, 전략과 연계된 개인성과지표 472개를 개발, 외부용역을 통해 지표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성과관리 체계와 인사·보상 체계의 연계강화, 성과창출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차등폭을 2.2배로 운영하는 등 성과에 따른 차등적 보상체계를 운영하였으며, 우수성과 공유와 저성과 부서 및 개인에 대한 성과향상 교육 및 코칭을 실시하여 성과향상을 유도하였다. 저성과부서에 대한 코칭 만족도가 2015년 3.97점에서 2016년 4.02점으로 상승하였고 저성과자 교육 실시 직원 중 4명의 평가등급이 향상되었다.



조직평가와 개인성과평가의 연계성을 강화하였으며, 개인성과평가 제도 설명회를 실시하여 제도에 대한 직원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2016년 중진공은 직원이 행복한 조직 만들기를 목표로 소통(Communication), 힐링(Healing), 신바람(Fun)을 3대 전략으로 수립하였다. 우선 수평적 문화 조성을 통한 소통 강화를 위해서 CEO-직원 간 직접 소통채널인 SBC 필통(feel通)을 운영하며, 사업, 인사, 조직문화 등 조직 전반에 대한 직원의견을 CEO가 직접 검토하기도 하였다. 또한 4, 5급 실무자급 위원으로 구성된 공감보드를 운영하며 수출마케팅 사업 등의 안건토의를 통해 총 42건의 제도개선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부서 및 직급 간 소통 및 조직 활력 도모를 위하여 문화예술동호회, 주말동호회 등을 신설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힐링 프로그램도 강화하였다. 입사 5년 미만 직원을 대상으로 입사 초심 찾기 및 재충전을 주제로 한 리프레시 워크숍을 신규로 개최하였고, 격무에 지친 직원을 위한 마음건강교육(힐링캠프)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전문가 상담(EAP) 지원을 확대하는 등 마인드케어 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진공은 일·가정(삶) 양립 지원 등으로 일할 맛 나는 신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PC-OFF 전산시스템을 전격 도입하여, 매주 수요일을 PC-OFF데일로 지정하고 정시퇴근하는 문화를 조성하였다. 그 밖에도 팝 피아니스트 윤한 초청 '제3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콘서트'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기도 하고, 동기회 워크숍, 주말농장 등의 운영으로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 밖에도 사가(社歌) 개정을 통하여 변화된 중진공 비전과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직급별 심층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조직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열린 조직문화 구축을 도모하였다. 그 결과 2016년 조직문화지수(리더십, 조직력, 소통, 신뢰 등 4개 분야에 대한 중진공 조직문화 수준을 측정하는 고유의 진단지표)는 4.08점으로 전년 3.76점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가슴 뛰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직원이 행복한 조직 만들기

리프레시 워크숍



제3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콘서트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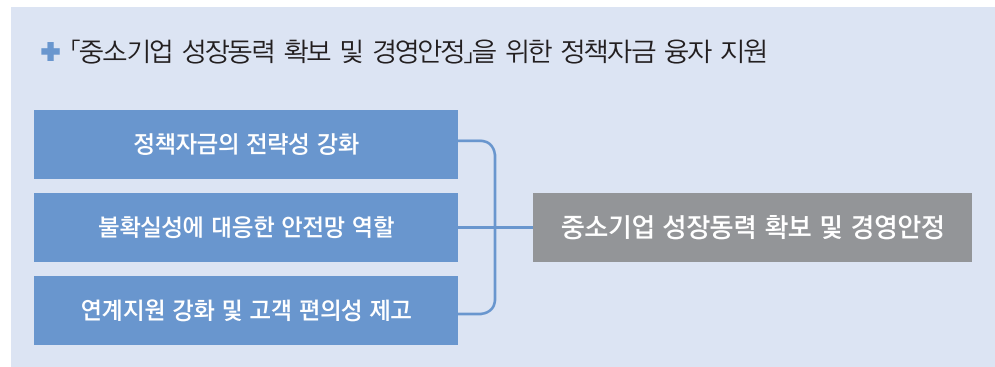
## 2017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추진 방향

---



2017년 중진공은 ① 중소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자금 용자 지원, ② 수출 성과창출 중심의 사업 추진, ③ 수요자 상황별 인력양성 맞춤 연계지원 체계 강화, ④ 기술지원 기반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정부정책을 최일선 현장에서 수행하는 현장접점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안전판, 성장판 역할에 집중할 계획이다.

### ① 정책자금 용자



#### 수출·창업·고용창출 기업 지원 강화

정부의 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한 수출사업화 자금을 신설(500억 원)하고, 수출성공기업(직수출 10만 불, 0.2%), 수출향상기업(직수출 50만 불, 0.4%)에 대한 금리우대와 더불어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3년 이상 기업에 대한 신용지원과 자금규모도 확대한다.

#### 신성장동력산업 및 서비스업 지원 확대

조선·해운업 등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는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조선 밀집지역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5,400억 원을 우선 배정하고, 산업 구조조정 업종에 대한 정책자금 용자 신청요건 완화를 통해 금융부담 및 접근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제도 개선을 통한 고객불편 해소

온라인 용자 신청 시 공인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제도를 도입하여 오프라인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금융거래확인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정책자금 용자 신청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고객 만족도가 높은 사전상담 예약제를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② 글로벌화 및 판로확대



내수기업(수출 초보)과 유망·강소기업 Two-Track 지원

내수기업(수출 초보)은 초기 정책자금 융자 지원에서 기업평가시스템의 수출역량 평가를 글로벌역량 진단 모델과 연동하여 수출 유망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2017년 정부의 6,000개사 발굴 목표 중 중소기업진흥공단 2,588개사 목표 부여)

유망·강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하고,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수출비 입주 등과 같은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정책자금 융자와 연계하여 통해 사업 성공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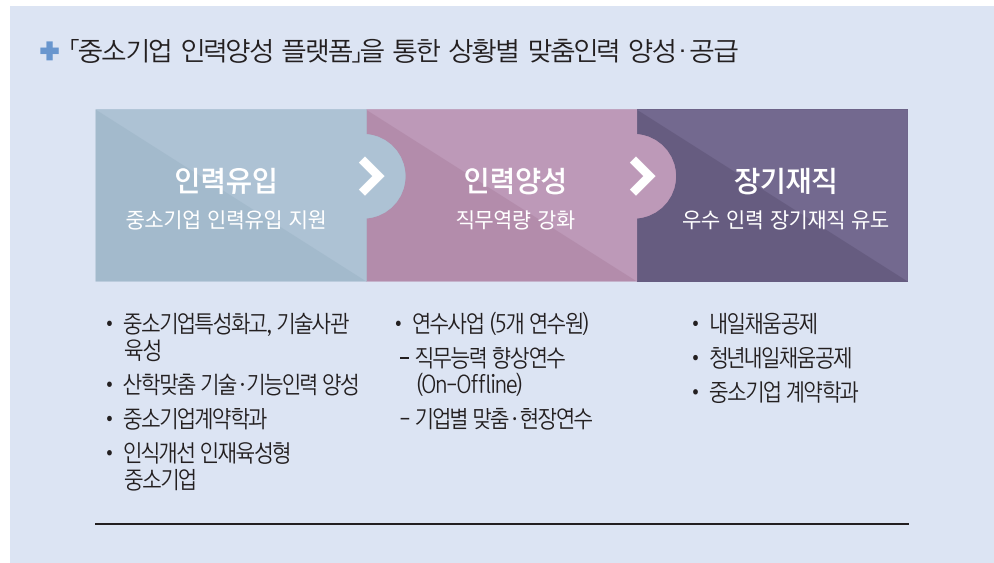
수출바우처 사업 구성					
(단위 : 개사, 백만 원)					
구분	기준	세부 프로그램	기업수	소요예산	운영기관
중기청 (중진공)	내수/초보	수출성공패키지	1,950	478	지방청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620	310	중진공
	유망	차이나하이웨이	250	150	중진공
		글로벌강소기업	150	50	KIAT
	중견	맞춤형 중견기업해외마케팅	100	100	KIAT
소 계			3,070	1,088	

### 수요자 중심의 수출지원 체계 구축 및 해외 마케팅 다각화

2017년 수출바우처 사업 관리기관으로서 수출성공패키지 등 5개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고, 민간 수출전문기업(GMD)이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전 과정(수출준비 → 해외마케팅 → 수출)을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GMD사업 전용자금(300억 원)을 신설하여 연계지원을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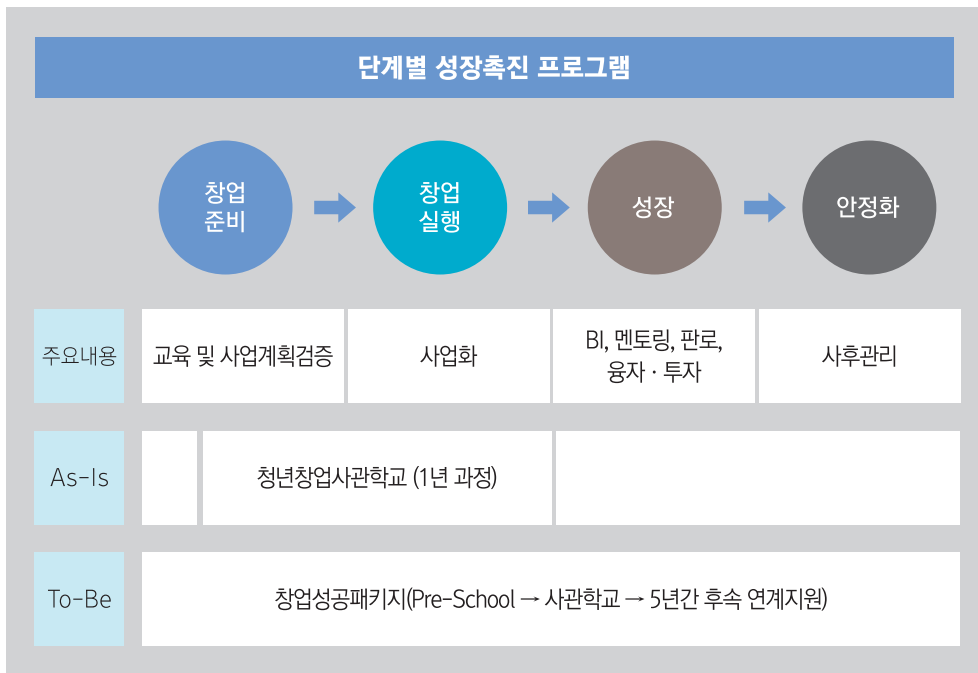
또한, 해외중소기업지원센터 내 홍보전시관을 설치하여 유력 바이어와 국내 우수제품 간 맞춤형 매칭상담회를 확대하고, 한국 중소기업 제품 판매에 적합하고 중소기업 선호도가 높은 쇼핑몰, 한국관 등 판매채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2016년 2,000개사 → 2017년 3,000개사).

### 3 인력양성사업



### 청년창업 단계별 패키지 지원체계 구축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창업자 발굴·육성부터 창업 전 단계에 걸친 패키지 지원으로 성과 창출형 기업을 양성함과 동시에, 가톨릭대 입학제도 신설과 같은 유망 창업자의 입교 기회 확대와 지역 특화산업 창업자 육성 등 창업 인프라 확충(24% → 35%)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충청연수원 건립추진일정 :  
 (2017) 설계 → (2018) 착공 → (2020) 준공 →  
 (2021.3) 개원

\* 사관학교 최대 2억 원 + 후속 패키지 지원 최대 8억 원

###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인재육성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스마트공장 인력양성 지정기관으로서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국내 최초의 러닝팩토리(Learning Factory) 구현으로 현장 적용도가 높은 실습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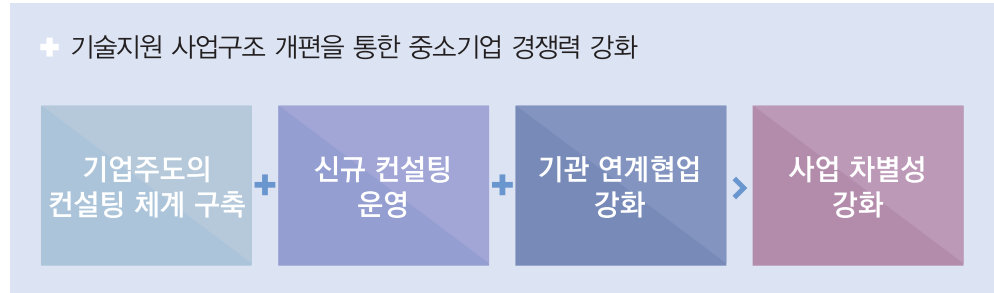
또한 중소기업연수원의 러닝팩토리 운영 노하우 전수와 청년창업사관학교와의 지속적인 사업연계를 통해 건립 추진 중인 충청연수원은 스마트 창업 전문 연수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 연계·협업을 통한 내일채움공제 동반성장 모델 확산

내일채움공제 가입창구를 금융기관, 협회 등 민간기관으로 확대하여 신규고객 발굴 및 가입 활성화를 추진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 유형을 기존의 청년취업인턴제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공기업 등 공공분야와 대기업과의 협력 모델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상생의 기업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④ 기술사업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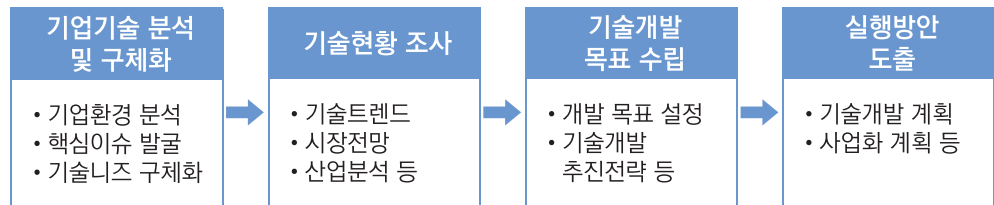


##### 중소기업 컨설팅 사업 체계개편 및 신규 컨설팅 운영

컨설팅의 최종 성과는 기업 관계자의 관심과 이해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17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은 기업이 보다 주도적으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청양식을 간소화하고, 사전 워크숍을 통해 컨설팅 사전정보 제공하는 등 “기업주도 컨설팅”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또한, R&D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하는 “R&D 사업계획 컨설팅”을 신설하여 정부 사업 참여 유도를 통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R&D 사업계획 컨설팅 수행 절차



또한, 중소기업이 산업혁명 4.0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화형 컨설팅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서비스화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제조업의 서비스화 추진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경쟁력 강화

정부의 KOSBIR 참여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성공률 제고에 부응하기 위하여 R&D 성공과제에 대한 사업화 연계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기술사업화 진단 및 사업화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제품화 지원을 시장검증 및 시장 친화형 기능 개선 지원사업으로 재편하여 운영한다.

또한, 레저장비산업 개발 지원사업은 기술개발 위주에서 사업화 단계까지 지원 분야를 확대하고, 중소조선연구원 등 지원기관과의 정기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협업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술사업화 사업 개편 방향

기존 (2016년)			개편 (2017년)	
기술사업화 진단	사업화 추진 유형 분류	➤	기술사업화 진단	사업화 추진 유형 분류 + 연계지원 수요조사
사업화 기획	사업화 추진 로드맵 수립		사업화 기획	사업화 추진 로드맵 수립 + 연계지원 코칭
제품화 지원	시제품 제작, 마케팅, 홍보 등		사업화 지원	시장검증
			기술 상용화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

# 4

## 부록

---



108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출자회사 현황
111	2016년 발간 간행물
111	2016년 주요 행사
112	조직도
113	운영위원 및 임원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출자회사 현황

## (주)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중소기업제품판매회사의 설립)」에 의거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장 및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1995년 12월 21일 설립되었다.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1999년 12월 3일 목동 판매장(행복한세상백화점)을 개점하였다. 2012년 9월에 '행복한백화점'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4층에 중소기업전용판매장인 「HIT500 PLAZA」를 확장 오픈하여 창업벤처제품, HIT500제품, 청년창업사관학교 제품 등의 초기 테스트 판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 10월에는 창조혁신제품의 '유통 마중물' 역할의 확대를 위해 4층 중소기업전용판매장을 「아임쇼핑」으로 개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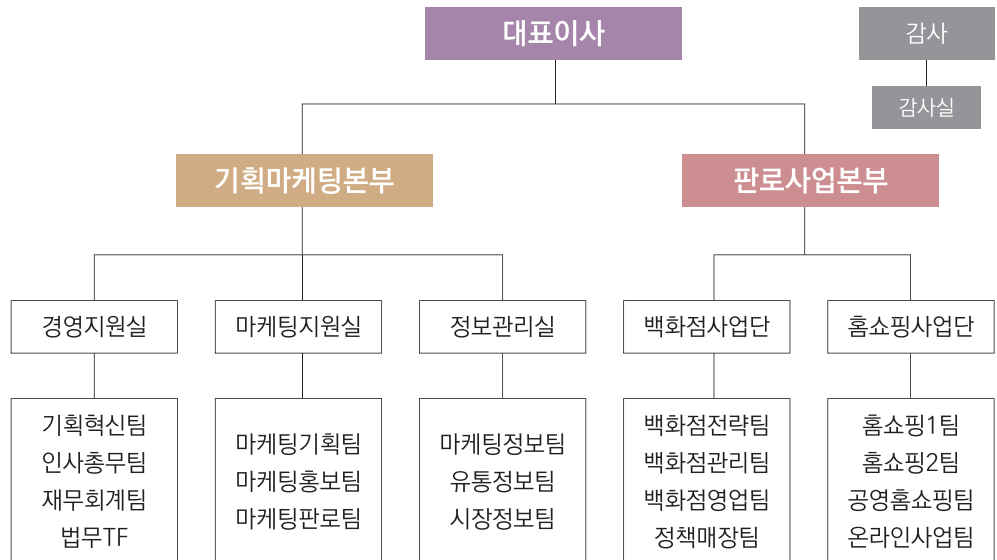
또한 소비자가 우수 중소기업제품 사용을 더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전용판매장을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였고, 판매성과 제고를 위해 면세점 위주의 매장 개편도 실시하는 등 2016년에 총 12개의 중소기업전용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판로채널 확대를 위해 2001년부터 TV홈쇼핑사에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공급하고 2012년에 중소기업전용홈쇼핑인 (주)홈앤쇼핑 설립 시 주요주주(지분 15%)로도 참여하고 있다. 2015년 3월에는 중소기업제품·농산물 판로확대, 창의·혁신상품에 대한 시장진입 장벽 해소, 불공정거래 개선 등을 위해 농협경제지주와 수협중앙회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주)공영홈쇼핑을 설립하고 최대주주(지분 50%)로서 중소기업 제품의 방송판매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 밖에도 초기시장진입지원, 중기제품홍보, 구매상담회 등 중기판로지원사업과 통합유통플랫폼 구축 운영 및 공동 A/S지원 등 중소기업의 판로활성화 및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주)중소기업유통센터 조직도

(기준 : 2017년 4월)



한국벤처투자(주)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촉진법」에 의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한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관리·운영하는 투자관리전문기관(舊 다산벤처)으로서 2005년 6월 29일 개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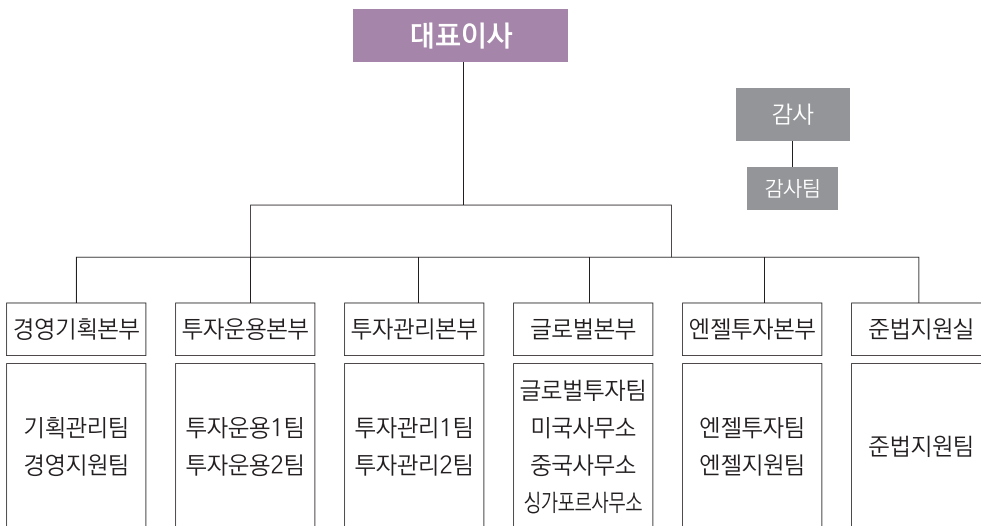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은 2016년 말 현재 2조 4,432억 원이 조성되어, 4조 248억 원(488개 조합)을 출자 약정하여, 15조 178억 원의 자조합(한국벤처투자 조합 등)을 결성하였다.

그 밖에 한국벤처투자(주)는 해외 벤처투자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KVIC Global GP Summit'을 개최하고, 해외 VC 외자유치펀드를 확대 조성하였다. 또한 GP(General Partner) 및 LP(Limited Partner) 간담회 및 자조합 이슈별 사례연구회를 통한 사후관리 절차 개선으로 시장친화적인 자펀드 사후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조기경보시스템 개편 및 준법모니터링시스템 구축으로 리스크관리 역량을 강화하였다. 더불어 VC/PE Monthly(벤처캐피탈 전문 월간지) 발간,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벤처캐피탈산업 관계자들을 지원하였다.

## 한국벤처투자(주)

### 한국벤처투자(주) 조직도

(기준 : 2017년 4월)



## SBC 인증원

SBC 인증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와 산업자원부의 중소기업 품질경영체제 인증관련 사업추진 위촉에 따라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995년 7월 28일 중진공 ISO9000 인증기관으로 설립되었다.

- ISO(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 ISO-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
  - TL-9000: 정보통신분야품질경영시스템
  - K-OHSMS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SBC인증원은 ISO-9001, ISO-14001, ISO-22000, TL-9000, K-OHSMS 18001 등의 인증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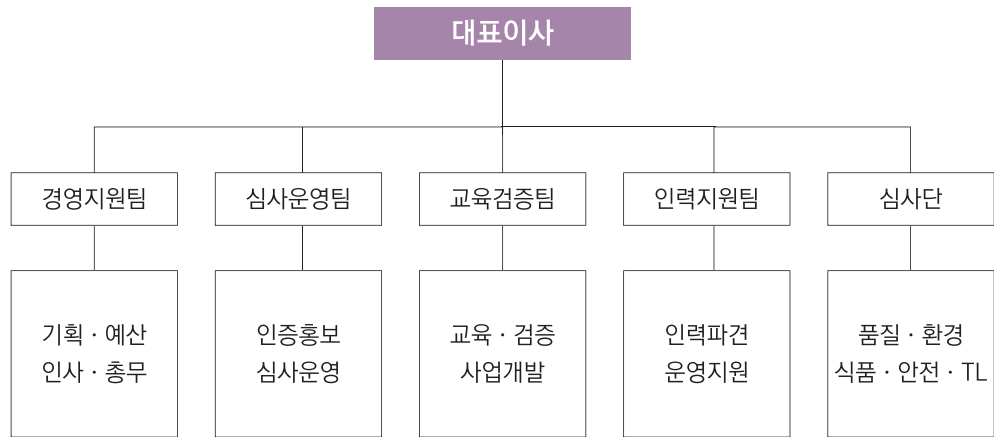
### SBC 인증원 사업실적

(단위 : 건, 백만 원)

구분	인증건수	매출액	당기순이익
2014	814	5,156	136
2015	860	5,622	138
2016	863	5,729	133

### SBC 인증원 조직도

(기준 : 2017년 4월)



# 2016년 발간 간행물 / 주요 행사

2015년 기업진단 우수 사례집	'16.03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우수 사례집	'16.03
중소기업 세계를 열다	'16.05
2015년 연차보고서	'16.05
성공사례집 - 글로벌 중소기업을 꿈꾸다	'16.08
중소기업, 인재가 답이다(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우수 사례집)	'16.11
너는 나의 등불	'16.11
청년이 된다 청년이 크다 3	'16.12
성공사례집 - 정책자금, 중소기업 성공의 날개를 달다	'16.12
온라인수출마케팅, 고비즈코리아로 向하다	'16.12

## 발간 간행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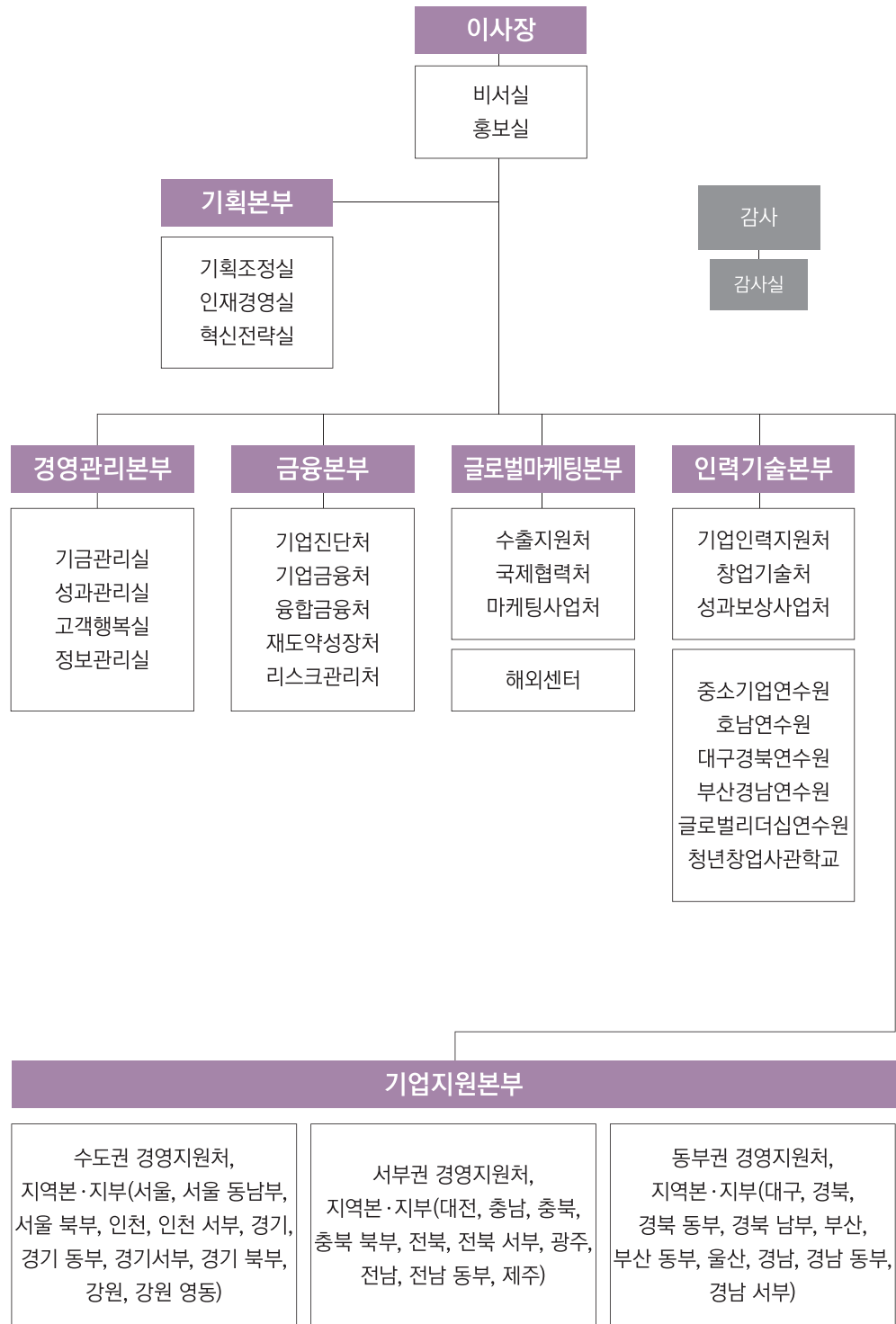
1월	27일	중진공感 장학금 수여식
	28일	창립 37주년 기념식
2월	3일	산업부 장관 주재 민관합동 수출투자진흥회의
	24일	청년창업사관학교 제5기 졸업식
3월	2일	중진공-이노비즈협회 MOU 체결
	17일	중소·중견 수출활성화 정부·업계 협력선언
4월	4일	임원 및 부서장 핵심과제 협약식
	7일	ICSB Conference 참석
	28일	중소벤처 청년채용 박람회
5월	10일	중진공-신한은행 MOU 체결
	26일	2016년 제2차 운영위원회
	27일	중진공-한국프랜차이즈협회 MOU 체결
6월	2일	2016년 윤리경영의 날
	9일	내일채움공제 강원도 협력 MOU 체결
	10일	정책금융포럼 참석
	29일	재창업 성공캠프 개소식
7월	1일	청년창업기업 글로벌진출 지원사업 선정식
	6일	대한상공회의소 MOU 체결
8월	26일	국민대통합위원회 MOU 체결
	30일	글로벌 유통망 소싱페어
9월	5일	추석맛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청렴 캠페인
	30일	한·일 중소기업 정례회의
10월	13일	제2회 중소기업컨설팅 컨퍼런스
	13일	글로벌 CEO 클럽 워크숍
11월	3일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MOU 체결
	15일	내일채움공제 한국전력 협력 MOU 체결
	25일	중기청-중진공 정책토론 워크숍
	30일	무역협회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
12월	1일	2016 창조경제 벤처창업대전
	8일	수출중소기업 도약한마당
	19일	올해의 으뜸중기제품 시상식

## 주요 행사

# 조직도

(조직) 6본부 10실, 14처, 31지역본·지부, 5연수원, 1학교, 1센터

(기준 : 2017년 3월 말)





# 운영위원 및 임원

(기준 : 2017년 4월 말)

구분	성명	소속기관	직위
위원장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연직	방기선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이상훈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장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위촉직	이용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문위원
	홍지승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실장
	윤소라	(사)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이정희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길재욱	한양대학교	교수
	이상철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상근부회장
	이원해	대모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권장섭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 운영위원

(기준 : 2017년 4월 말)

직위	직무	성명
이사장	중진공 업무 총괄	임채운
감사	중진공의 업무 및 회계 감사	박정성
부이사장 겸 기획본부장	이사장 업무대행 또는 보좌, 예산, 조직, 인사, 경영전략 및 조직혁신 등과 관련된 업무	이한철
경영관리본부장	기금관리, 조직문화, 평가, 정보보안 등과 관련된 업무	김현태
금융본부장	기업집단, 정책자금 융자, 리스크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	류봉걸
글로벌마케팅본부장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확대, 마케팅 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	이용승
인력기술본부장	연수, 성과보상기금, 창업·기술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	조내권
기업지원본부장	지역본·지부 운영, 사업집행 관리·조정 및 평가 업무	정진수
비상임이사	중진공 경영 의사결정 참여, 경영활동 감시 및 자문 등의 업무	오석송
비상임이사	중진공 경영 의사결정 참여, 경영활동 감시 및 자문 등의 업무	한무경
비상임이사	중진공 경영 의사결정 참여, 경영활동 감시 및 자문 등의 업무	허미연
비상임이사	중진공 경영 의사결정 참여, 경영활동 감시 및 자문 등의 업무	정인태
비상임이사	중진공 경영 의사결정 참여, 경영활동 감시 및 자문 등의 업무	조영삼
비상임이사	중진공 경영 의사결정 참여, 경영활동 감시 및 자문 등의 업무	최우영
비상임이사	중진공 경영 의사결정 참여, 경영활동 감시 및 자문 등의 업무	백병성

## 임원

---

# ANNUAL REPORT

## 2016

---

### 2016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차보고서

발행일 : 2017년 6월

기획 및 편집 : 중소기업진흥공단 혁신전략실

발행인 : 임채운

발행처 : 중소기업진흥공단